

2017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2017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목 차 C O N T E N T S

2017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1부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개요

I. 아동인권 선임교사

1.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정의 08
2.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덕목 10
3.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11

II.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

1. 아동학대예방 교육관리 14
 - 1) 자율장학
 - 2) 외부교육 나누기
 - 3)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관리
2.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19
 - 1) 아동학대예방
 -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3. 기관 연계 27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2) 건강가정지원센터
 - 3) 아동보호전문기관
 - 4) 정신건강증진센터
 - 5) 기타연계 기관
4. 기타 교사 지원 36
 - 1) 부모상담지원
 - 2) 보육교직원 정서적 지원



2부

교사공동체의 아동인권 자율장학 운영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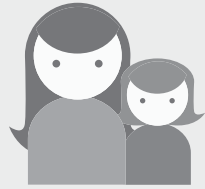
1. 인권 주제 자율장학 47
 - 1)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 2) '참여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기
2. 도서를 활용한 자율장학 68
3. 동영상을 활용한 자율장학 75
4. 훈육 주제 자율장학 82
 - 1) 급 간식시간 훈육 사례 나누기
 - 2) 또래 갈등 훈육 사례 나누기
 - 3) 보육활동 시, 방해 행동에 대한 훈육 사례 나누기



부록

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122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 124





1부.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개요





아동인권 선임교사

I

1.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정의
2.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덕목
3.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I 아동인권 선임교사

1.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정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추진 근거

〈‘2015 열린어린이집 등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 서울시, 2015. 2. 17 중〉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필요
- 성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아동을 보호 · 육성할 책임이 있음
-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보육 요구가 높음

사업개요

- 대상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 대상으로 하고, 기타 민간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 : '15. 3월부터
- 운영방식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1명을 지정 · 운영
 - 보육교사 및 부모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매개체 역할 수행
 -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안심보육 기반 마련
 - 책임교사의 업무부담 및 적극적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사업내용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상설화하고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를 지정

√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은 어린이집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1명을 지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 진행

• 책임교사의 역할

- 아동학대예방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지역별 소그룹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에게 교육내용 전파 및 상담, 학대징후 예방 및 전문기관 연계 등
- 아동인권 선임교사 소그룹 활동(교육 등)을 통해 예방교육 및 정보 공유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책임교사 소그룹 활동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유형별, 특성별로 심화내용 교육 및 예방사례 공유를 통한 현장 적응력 증대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부 소통역할 및 원내 전파 : 아동학대 예방 관련 규정, 지침서, 사례, 긍정적 훈육방법 등 교육에 참석하고 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안내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어린이집에서 책임교사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 우대 기준 마련 권고 (향후, 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예정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에서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명칭 변경 사유: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용어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낄 수 있어, 어린이집 현장 소통위원회를 통해 순화된 용어 사용 (보육담당관-6111, 2015.3.)

※ ‘2017년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추진계획 ; 서울시, 2017. 2. 10 중

2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운영

보육교직원 간 정보 공유 및 아동인권 존중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

- 사업대상 :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
- 추진방법 :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지정
 - 어린이집에서는 선임교사 지정 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선임교사 역할 : 소그룹 교육에 참여 → 보육교직원에게 전파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징후 발생시 전문기관 연계 등 소통 역할
 - ※ 소그룹 교육 : 보육교사 15명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진행 ‘훈육주제 집단상담’, ‘영유아인권 교육(기본 및 심화과정)’
- ‘17년 추진계획
 - 선임교사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안내서 개발 배포 : 6,500부
 - 선임교사 지정 어린이집 확대 : 전체 어린이집의 75%(‘16) → 80%(‘17)



2.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덕목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을 대표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자기이해

타인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로서의 자신의 강점, 단점, 성격, 정서, 행동양식 등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기존중감이 높고, 자기반성적이며,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이해력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동조하기도 하며, 자기방어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하여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동료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인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기이해가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인권에 대한 이해

어린이집에는 원장, 동료 교사, 영유아와 부모님 등 다양한 성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과 영유아 모두 존엄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객관적 통찰력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칫 감정에 매몰되어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예리한 통찰력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객관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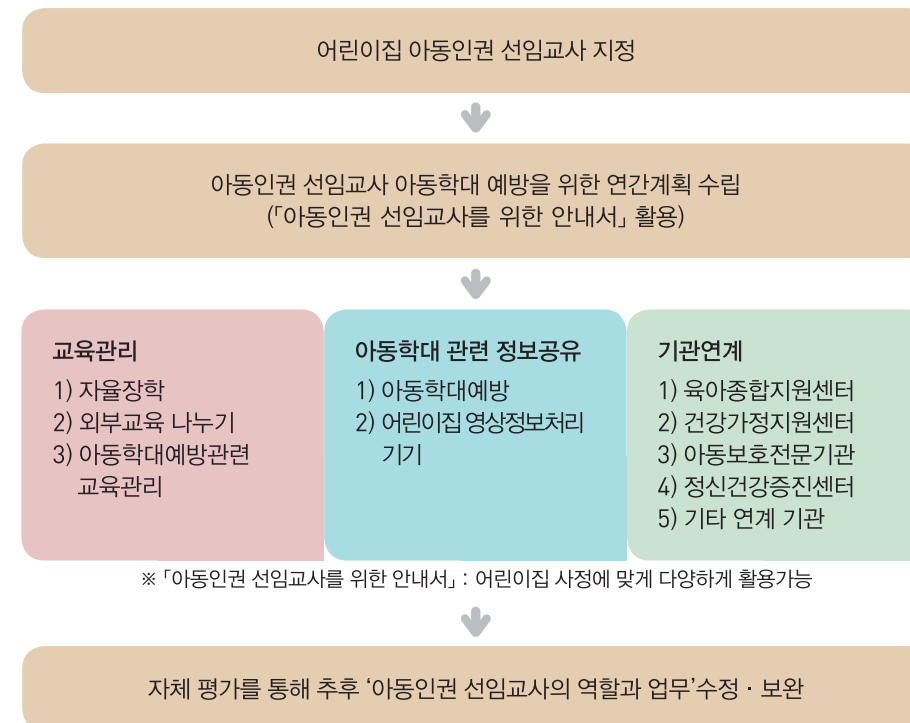
④ 전문성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사로서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의 이론과 보육현장의 다양한 경험이 잘 접목되어 동료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본 안내서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원 내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료교사 및 영유아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서울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

II

1. 아동학대 예방 교육관리
2.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3. 기관 연계
4. 기타 교사 지원



Ⅱ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

1. 아동학대 예방 교육관리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린이집 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 내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자율장학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원 내 보육교사들과 함께 도서, 동영상, 자기분석 등을 통해 자율장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① 도서, 동영상을 활용한 자율장학¹⁾

원장의 추천 혹은 교사 간 의견을 나누어 도서 및 동영상을 선정한 후,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으로 자율장학을 실시합니다. 도서 및 동영상을 통해 느낀 점, 적용 가능한 점, 나누고 싶은 부분, 새로 알게 된 내용, 공감되었던 부분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1) 본 책자 p.68~81.

②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장학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사회의 시간이나 별도의 교육시간을 계획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장학하고 영유아-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유아를 존중하는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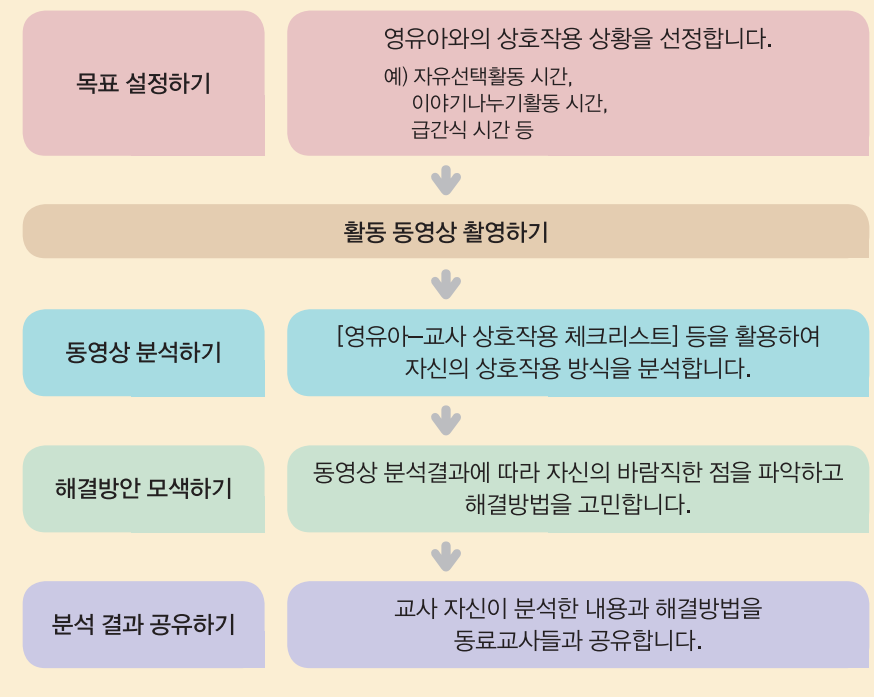
자기장학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기계획이나 자기분석을 통해 자발적으로 장학을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장학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보육활동과 관련된 실천 행위를 스스로 관찰, 분석, 평가해보는 '반성적 저널 쓰기',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사 행동을 분석하는 '자가 평가 체크리스트' 자신의 보육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해보는 '활동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장학의 예시

'활동 사례 분석' :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자기분석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실천하고 있는지 등의 상호작용 내용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하여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체크리스트]²⁾

연번	내용	확인
1	교사는 영유아에게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친다.	Y / N
2	교사는 영유아가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듣는다.	Y / N
3	교사는 모든 영유아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Y / N
4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준다.	Y / N
5	교사는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한다.	Y / N
6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Y / N
7	교사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영유아를 관찰한다.	Y / N
8	교사는 영유아의 욕구와 질문에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한다.	Y / N
9	교사는 영유아가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Y / N
10	교사는 영유아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 격려한다.	Y / N

2) 외부 교육 나누기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외부 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 학회 등)에 참여한 후, 전달연수를 통해 원 내 보육교직원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합니다.

연간 교사교육 계획안에 따라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외부 교육에 참석하고 이후에 교사회의 시간 등을 통해 전달교육을 진행합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원 내 보육교직원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추가 자료를 검색하여 함께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 교육의 예³⁾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훈육 주제 집단상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교육 나누기를 실시합니다.

- ①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외부 교육 일정 다음으로 원 내 모든 보육교직원이 함께 교육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 ②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배부 받은 PPT를 출력하고, 교사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워크시트 등으로 정리하여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교육 전달 :
 <1부. 나를 알고 행복하기>를 통해 보육교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나의 특성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2부.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훈육에 대해 알아보고 반에서 일어났던 영유아 훈육과 관련된 사례를 나누고, [장기적 목표설정, 상황분석하기, 협력하기,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④ 교육 이후, 교직원이 느낀 점, 추후 실천 방향 등을 모색해보도록 합니다.

2) 조부경, 백은주, 서소영(2009). 유아교사의 발달을 돕는 장학. 파주 : 양서원, Arnett, J.(1989). Caregivers in day-care center : Does training matte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4), 541-552. 참조 수정.

3) 본 책자 p.82~119.



3) 아동학대 관련 교육관리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원 내 모든 교사가 연 1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원내 교사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장과 협의하여 아동학대예방 관련 연간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이를 관리·기록하도록 합니다.

2017 아동학대예방 관련 연간 교사교육 계획안 예시

시기	교육명	내용	참여자
3월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정의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전체교사
4월	도서를 활용한 자율 장학	〈놀이지도, 아이들을 사로잡는 상호작용〉 p.355-361, ◎ 교육 전에 : 도서를 읽은 후, 교사의 주도성이 두드러졌던 사례 생각해오기	전체교사
5월	인권 주제 자율공부모임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 교육 전에 : 도서를 읽은 후 교육 참여	전체교사
6월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장학	00반 수업사례분석 :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전체교사
7월	아동인권 선임교사 외부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훈육주제집단상담	아동인권 선임교사
8월	아동인권 선임교사 외부교육 나누기	훈육주제 집단상담 내용 나누기	전체교사

※ 원내 행사 및 외부 일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다음의 정보를 원 내 보육교직원에게 공유하고, 부모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아동학대 예방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교육, 아동학대 신고절차 등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신고의무자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과태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②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16.11월 시행)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부록 2. 참고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④ 교육가능 사이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 정보 > 교육 자료 게시판 >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을 활용가능 (기관별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 나눔정보 > 자료실 > 권리존중보육(아동학대예방)동영상

⑤ 과태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뉴스를 통해 살펴본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중요성

[세계일보] 4살 '은비'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 방해하다니...”

책임자 처벌 목소리 커져 2017-02-19

3세 여아를 입양한 뒤 아동학대로 숨지게 한 '은비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 외에 관련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달 초 재판에서 양부 백모(53)씨가 징역 10년, 양모 김모(49)씨가 집행유예(징역 10월)를 각각 선고받았지만 이 외의 관련자들은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은비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의사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수사를 방해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20일 대구가톨릭대 하양캠퍼스 정문 앞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C교수에 대한 규탄집회를 연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15년 12월 대구의 한 가정에 입양된 은비(가명·당시 3세)는 지난해 7월 경북대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후송돼 뇌사판정을 받은 뒤 10월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은 몸 구석구석의 멍과 화상자국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등을 거쳐 지난 8일 양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은비의 사망은 또 다른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4월에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은비는 대구가톨릭병원 응급실에 후송됐고, 의료진은 온몸의 멍과 화상자국 등을 들어 아동학대의심신고를 했다.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물고문의 징후로 여겨지는 '저나트름 혈증(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해 체내 나트륨 수치가 급락하는 것으로 정상치는 135~145이지만 은비의 수치는 115였음)' 소견도 있었다.

경찰과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1차 신고 뒤 수사가 시작되자 주치의도 아니었던 C교수가 개입해 양부모를 두둔하는 한편 신고한 병원 관계자를 강하게 책망했다. 백씨 부부와 오랜 친분 관계를 쌓으며 백씨의 다른 자녀를 진료하기도 했던 C교수는 경찰에 “백씨 부부는 은비 외에도 여러 아이를 입양해 키운 훌륭한 분들이다”, “은비 몸의 상처는 자해지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비가 대구에 앞서 경기 동탄의 한 가정에서 파양된 사실을 두 차례로 전하는 등 은비의 문제점을 부풀렸다.

C교수가 은비의 주치의가 맞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던 경찰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사가 은비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물론 가정사까지 소상히 설명하자 곧이곧대로 믿고 ‘오인 신고’로 결론지었다.

2차 신고가 이뤄지고 은비가 뇌사 및 사망에 빠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추가 조사에 나섰지만 C교수는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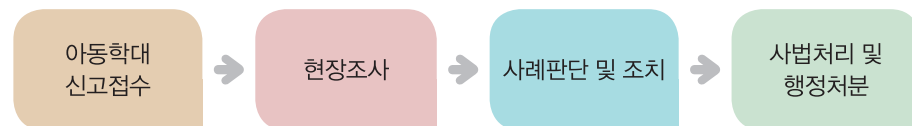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뒤늦게 지난달 C교수에 대해 내부 차원의 경고 조치 외에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은비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는 정확한 판단이었고, 아동학대는 용인돼선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의료진의 역할은 신고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학대치사 혐의로 양부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이를 아이의 자해로 몰고 간 것은 명백히 의사의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의사를 옹호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대구가톨릭대는 명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 아동학대 사례 신고 및 개입 절차⁵⁾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경찰)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접수 내용을 보고하며 현장조사에 동행을 요청합니다.

② 현장조사

- 신고접수 후, 경찰 우선 및 동행 출동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인 1조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동학대 증거자료 확보 : 현장조사 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증거자료(학대 사실 확인서, 증거 사진, CCTV 영상, 현장조사 녹화, 녹취 등)를 보존 및 확보합니다.
- 현장조사 과정에 취득한 증거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의 비밀 누설금지 등에 의거 당사자에 한한 정보 외에는 제공을 금지합니다.

③ 사례판단 및 조치

- 아동학대 혐의 사례, 조기 지원 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여 사례를 판정(단) 하고 각 사례에 따른 적절한 개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 정황이 입증되었을 경우, 학대의 위험 수준에 따라 원 가정 보호, 격리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속하는 경우 사법처리 지원 등 필요 조치를 진행합니다.
- 조기 지원 :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아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부적절한 훈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합니다.
- 일반 사례(판단 불가) :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사례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 피해 아동 :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 학대행위자 : 보호처분, 임시 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 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
 - 가족 : 상담, 가족치료, 가정 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족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 지원 종결 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회의 개최,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 조기 지원 사례 및 일반 사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tip

피해 아동 보호조치

- 아동학대 위험도 및 안전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피해 아동 응급조치를 집행합니다.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로 영유아를 인도하며 응급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경찰로 송부하고 응급조치 실시에 따른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⁶⁾을 청구하여 피해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 시설로 보호 위탁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치료 및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 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판단 결과, 피해 아동 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법처리(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5조, 제4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처벌 내용 : 자격취소, 보조금 중단, 평가인증(참여)취소, 폐쇄 조치됩니다.
- 학대행위자 처벌 내용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행위자 처벌, 공범자 처벌됩니다.

5)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1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p.88~89.

6)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 학대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당하고,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친권행사 정지 당하게 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음

tip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설치자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독과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교육 및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면밀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포스터⁷⁾



7)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⁸⁾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요청 사유 및 절차 등을 알려줌으로써 다양한 사유로 CCTV를 열람을 원하는 학부모에 대한 상담 내용을 지원하고 열람 확인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란?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 예방,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설치·운영(영유아보육법 제15조)되며 이는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요청 가능 사유

-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 혹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요청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 시 즉시 열람)
 - 관계 공무원(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서, 조사 계획서 등의 증표로 요청하는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문서, 신분증(예, 조사원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 보관기관 경과로 영상정보 파기, 영유아 안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

CCTV 열람 전 확인 사항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 자료만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영상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 요청자)와 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의 요청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열람 시, 해당 영유아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이들의 개인 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ex. 영상 요청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자 준수 서약서 작성 또는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 등)

8)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p.14~16.



(2) 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절차

열람요청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CCTV영상물 열람요청서]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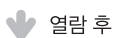
열람(제공)결정 통지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10일 이내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통하여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열람 형태, 열람 일시 및 장소를
경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열람(제공)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
(열람일은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람 후

열람대장 작성 및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요청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기관 연계⁹⁾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및 부모, 영유아를 다음의
다양한 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 지원 기관입니다.(영유아보
육법 제7조)

(1) 이용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2) 서비스 내용

① 영유아 대상

-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영유아 발달 검사
- 아동심리상담(놀이치료, 치료놀이, 미술치료 등), 인지 치료, 언어치료 등

② 부모 대상

-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 온라인 부모 양육 상담 등

③ 보육교직원 대상

- 아동인권상담전화(1644-9060)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기타 상담 진행
-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통한 보육교직원 개별 및 집단상담
- 아동학대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교육 진행
-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을 통해 특수교사 현장 방문지원, 치료사 현장 방문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9)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2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p.96~98.

(3) 상담전문요원의 보육교직원 상담

- 보육교직원 개별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이 가능하며 집단상담으로 '훈육주제 집단상담'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전문요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운영
- 서울시 어린이집 인권상담전화(1644-9060)를 통한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연계, 교사 지원 실시

(4)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번호	센터명	전화	주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701-0431 02)6901-0203~8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 주연빌딩 3층
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8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1
3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546-1736~7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72길 7
4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486-3556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6
5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994-6480,7480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6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2064-2730~2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 2길 50
7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851-2834~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3층
8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467-1828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9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859-5678, 5432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
10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894-2264~5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11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930-1944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4층
12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3494-3341~2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13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2237-5800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62
14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823-456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15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308-0202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16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3217-955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17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598-934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18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5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07 3층
19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918-8080~2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하월곡동 222-6)

번호	센터명	전화	주소
20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449-0505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21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2646-7790~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22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833-602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23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749-9673~4	서울시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이태원동 34-87)
24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351-3629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25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399-0890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26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2263-2626	서울시 중구 다산로 32길 5
27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2)495-0030~1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3길28

2)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 이용 안내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1577-9337) 예약 후 방문

(2) 서비스 내용

- 가족상담 : 부부상담(이혼전후, 다문화), 부모·자녀 상담(한부모 자녀), 가족상담 등
 - 다양한 가족 지원 : 다문화 가족지원, 한부모/조손가족지원, 군인가족 사업, 맞벌이 가족 사업, 기타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 등
 - 아이돌봄지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등
- ※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순번에 따라 대기 가능, 성인 심리검사는 가능하나 영유아 발달·심리검사는 서비스 불가함

(3)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의뢰할 경우 기관의뢰서(어린이집 양식)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
- 개인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로 전화신청

(4)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번호	센터명	전화	주소
1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8-0227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2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
3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71-0812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강동청소년회관) 2층 건강가정지원센터
4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87-2567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5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06-2017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6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83-9383, 9390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3층) - 1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2센터
7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58-0622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0길 23 2층
8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30-045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09 4층
9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03-7747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10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79-350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3층)
11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95-6800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창5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12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957-0760	서울시 동대문구 용신동 255-69호 다사랑행복센터 7층
13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301, 3260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2,3층
14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2-5482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
15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2-7595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44
16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576-2852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2층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2센터]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 서초구열린육아나눔터키움
17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395-9447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6길 9(홍익동)
18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290-1660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19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43-3844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번호	센터명	전화	주소
20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065-3400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46길 57 4층
21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678-2193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22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97-918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5-46 한남동 공영주차장·복합문화센터 3층
23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76-3761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지번주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469-1 3층)
24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4-3524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25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279-3891	서울시 중구 퇴계로 460-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26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435-4142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369 (면목본동 62-2)

3)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 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아동복지법 제45조, 제46조)

(1) 이용 안내

학대받은 영유아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함. 전화 상담을 통해 이용

(2) 서비스 내용

- 아동학대 신고 접수 : 112 신고, 일반상담접수 및 타기관 연계, 아동학대의심사례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신속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 현장조사 : 경찰 및 상담원 출동,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아동 조사 및 증거소집, 관련인 조사 및 증거 수집, 아동학대혐의 판단
- 학대혐의판단 및 조치 : 학대여부 판단
- 치료사업(피해 영유아, 학대행위자, 가족) 등 : 심리치료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 타 기관 연계 등

(3) 신청 방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 02)558-1391로 전화 상담
- 관할구역 확인 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 상담

지역	기관명	관할구역	전 화 번 호	주 소
중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558-139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 (역삼동)(06228)
서울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02)2040-4200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수서동)(06362)
	서울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02)2247-1391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장안동)(02520)
	서울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02)3665-5183-5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가양동)(07523)
	서울 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02)3157-1391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01, 4층(응암동)(03472)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02)842-009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07413)
	서울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02)923-544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07413)
	서울 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02)422-1391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04088)

4) 정신건강증진센터(<http://www.g-health.kr>)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확산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1) 이용 안내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2) 서비스 내용

- 정서 발달에 대한 상담 가능
- 영유아 심리검사는 유료 검사 실시 (차상위 계층은 검사비 일부 지원도 가능)
-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치료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의뢰

(3)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의뢰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용 방법 란에서 '의뢰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 개인상담 의뢰 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하여 예약 후 상담 가능

(4)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번호	기관명	전화	주소
1	강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2226-0344	서울시 강남구 일원9길 38 형일빌딩 3층
2	강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471-32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45(성내동 541-2) 강동구보건소 1층
3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985-0222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강북구보건소 3층
4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2600-5926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구보건소 지하1층
5	관악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879-491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별관 4층
6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450-1895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긴고랑로 110번지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7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861-2284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35-2 보성빌딩 5층



번호	기관명	전화	주소
8	금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3281-9314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5층 (독산1동 주민센터 건물)
9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2116-4591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10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900-5783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구보건소 1층
11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963-1621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12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588-1455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 동작노인건강증진센터 3층
13	마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3272-4937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
14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337-216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보건소 별관 우리들 4층
15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529-1581	서울시 서초구 바우뚝길 184 바우뚝복지문화회관 2층
16	성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2298-1080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14 성동구보건소본소 3층
17	성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969-9700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6층
18	송파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421-5871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19	양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2061-888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구보건소 지하 1층
20	영등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2670-479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 영등포보건소 내 지하1층
21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703-7121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구보건분소 2층
22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353-2801	서울시 은평구 연천초교길 15 불광보건분소 3층
23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745-0199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5길 10
24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2236-660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6길 16 중립종합복지센터 3층
25	종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3422-3804	서울시 종랑구 면목로 238 종랑구민회관 1층

5) 기타 연계 기관

(1)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www.broso.or.kr>)

①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 전화 문의

② 서비스 내용

-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교육·재활지원, 가족지원, 권익옹호, 자립·주거지원에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에 대한 도움 가능
- 전문가 상담코너를 통해 장애 영유아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1:1상담을 제공 (온라인 상담)
- 유용한 사이트 코너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체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소개

(2) 지역사회 복지관

① 이용안내

지역사회 복지관에 전화 예약 후 방문

② 서비스 내용

- 아동상담(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 서비스
- 영유아 발달 검사, 심리검사 등 전반적 발달 검사 가능
(복지관 마다 상이하므로 전화상담하여 문의하도록 함)

(3) 사설 아동 치료센터

① 이용안내

아동 치료센터에 관한 정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상담비는 유료)

② 서비스 내용

영유아 발달, 심리상담 및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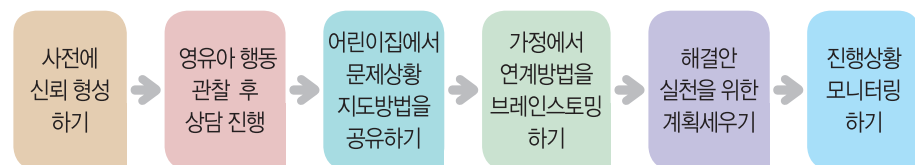
4. 기타 교사 지원

1) 부모상담 지원¹⁰⁾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보육교직원을 도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살피고 부모상담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교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영유아가 일관성 있는 양육환경에서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부모 상담

보육교직원은 부모상담을 통해 교사-부모가 협력하여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① 부모와 신뢰 만들기

부모상담을 위해서는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와 나누는 이야기는 비밀 보장됨을 안내하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도록 합니다.

- ▶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주 표현해 줍니다.
- ▶ 아이의 성향이나 세세한 행동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사이어야 합니다.
- ▶ 작은 메모 등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소통을 자주 합니다.
- ▶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하여 교실과 자신을 개방합니다.

② 영유아 행동 관찰 후 상담

교사가 영유아의 문제 상황을 인식했을 때는 행동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찰은 교사가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부모를 이해시키는 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상담 시, 관찰된 행동 및 문제 상황을 설명할 때는 누구의 편이나 입장에서가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에 대해 단정 지어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어린이집에서 문제 상황 지도방법을 함께 공유하기

교사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도하였는지 부모에게 전달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지도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여 가정에서도 지도를 일관성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는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지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가정에서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브레인스토밍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가정의 행동에 대해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도록 합니다.

⑤ 해결안 실천을 위한 계획 세우기

교사와 부모는 함께 생각해 본 다양한 해결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진행 상황 모니터링하기

가정에서 서로 실천해보기로 한 해결방안이 잘 진행되었는지, 진행상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보완하거나 새로운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10)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1권」,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P.88-89. 참고수정.



tip

학부모와 상담을 위한 방법**▶ 등·하원 시 어린이집과 교실 개방**

평소 어린이집이 부모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부모 위원이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함께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때 어린이집의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학부모에게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부모참여, 참관 등의 열린 어린이집 실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생활을 자주 관찰할 기회를 갖는다면 자녀를 객관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이해를 돕는 가정통신문, 부모교육

영유아의 발달상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때 교사와 함께 긍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지원¹¹⁾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발달 상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보육교직원의 정서를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1) 분노감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분노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인식, 공감하며 스스로 분노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① 분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분노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를 깊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분노 감정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분노 감정에서 벗어나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분노 조절하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멈추고 자신의 신체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tip

복식호흡하는 법

- 먼저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몸의 긴장을 풁니다.
- 숨을 쉴 때 되도록 배만 오르내리도록 하며, 코를 통해 부드럽게 숨을 들이 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편안하다', 속으로 말하면서 숨을 편안하게 쉽니다.
- 하나에서 열까지 세고, 거꾸로 열에서 하나까지 센 후 눈을 뜹니다.

(2) 우울감

보육교직원의 우울감의 업무 효율감 및 의욕 저하, 감정 기복으로 인한 감정 조절 실패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생활 전반 및 영유아 보육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 심할 경우에는 아동학대와 방치와 같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우울감을 나타내는 보육교직원과 함께 우울감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며 그의 긍정적인 노력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① 우울감 극복하기

보육교직원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11)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2권」,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P.58-65. 참고수정.



● 긍정적인 사고

생각에 따라 같은 일이라고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난 무능한 교사야.”,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분도 나빠집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희망적 생각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충분히 좋은 교사야.”, “나는 우리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존재야.”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허점 투성이라고 느껴질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나도 당연히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며 실수가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일에서는 실수가 잦은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

우울감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낄 때는 해야 할 일을 적어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적어보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ex.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즐겁고 재미난 일 생각하기, 날씨가 좋은 날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햇볕을 쬐거나 산책을 하는 것, 퇴근길에 좋아하는 간식 사먹기 등)

● 셀프 칭찬

우울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본인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동료 교사와 일과를 돌아보며 잘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칭찬을 해 보도록 합니다.

● 실천 가능한 계획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먼저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약물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우울 수준 체크하기(벡 우울척도 : Beck Depressin Inventory)¹²⁾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우울감을 느끼는 교사와 함께 우울수준을 체크해보고 이를 토대로 해당 보육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만약 우울 수준이 높게 나왔다면, 전문상담기관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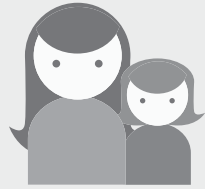
벡 우울척도 : Beck Depressin Inventory

다음 문항들에 해당하는 네 개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최근 1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안에 기입해 주세요. 하나도 빠지 말고 선택하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 느낀다.
()	4.	0) 나는 전과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질문지의 결과가 반드시 우울증의 진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괄호 안의 숫자의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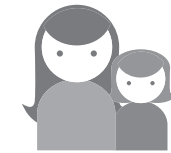
12)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2부.

교사공동체의
아동인권 자율장학
운영 실제





교사공동체의 아동인권 자율장학 운영 실제

I

1. 인권주제 자율장학
2. 도서를 활용한 자율장학
3. 동영상을 활용한 자율장학
4. 훈육 주제 자율장학



I 교사공동체의 아동인권 자율장학 운영 실제

본 안내서는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원 내 자체 교육 진행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2부에서는 〈워크시트〉 및 워크시트에 따른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을 제공하여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원활한 교육관리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각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흥미 있는 주제부터 먼저 선택하여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육교직원은 자율공부 모임을 통해 영유아의 자율성 존중과 영유아-교사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tip

「2부. 교사공동체의 아동인권 자율장학 운영의 실제」 활용방법

- 계획 :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관리]를 통한 연간계획 수립
- 시간 : 1시간 내외
- 장소 : 원내 교사 교육이 가능한 장소
- 형태 : 소그룹 워크숍 형태
- 방법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하에, 〈워크시트〉 작성 및 토론으로 교육이 이루어짐.



1. 인권 주제 자율장학

1)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1) 주 제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영유아 인권 실천 사례 나누기

(2) 목 표

-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집 내 영유아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켜 권리 존중의 실천방향을 모색합니다.

(3) 자 료

-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 해당 워크시트, 펜

(4) 활동방법

① 교육 전 계획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이전에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들에게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책자를 안내하고 교육주제 및 내용을 공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들이 모둠별(7명 이내)로 모여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순서에 따라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 보육교사는 작성한 워크시트의 내용을 나누고 모둠별로 모인 교사들은 각자의 사례 및 실천 방안을 공유하며 논의합니다.

③ 교육 후

교사 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영유아 인권 존중 사례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워크시트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¹⁾

연 번	내용	확인
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1	낮잠 및 휴식에 대한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시간,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다.	☐
1-2	대소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놀이하려는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3	급·간식에 대한 영유아의 기호, 먹는 속도와 양을 존중해주고 있다.	☐
1-4	배변, 배뇨 등 영유아의 기본적인 생리적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5	보육교직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2-1	영유아가 만든 결과(작품, 사진, 노래, 블록, 구조물 등)에 대해 존중하며 적절히 게시되어 있다.	☐
2-2	영유아의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3-1	영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놀이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
3-2	영유아의 흥미, 관심, 기분 및 건강상태를 전반적인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
3-3	영유아 간의 관계를 살피며 상호 역동성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한다.	☐
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4-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4-2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3	양육자의 보육실 참관(절차 및 방법, 안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5-1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상태(기분, 건강, 배변 등)와 가정 내 주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5-2	양육자에게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등 안정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5-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자와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서울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p1~2.

연 번	내용	확인
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
6-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
6-3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7-1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7-2	보육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1	어린이집 운영(보육과정, 특별활동, 견학, 행사 등)의 계획과 평가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8-2	반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회의를 통해 협력 및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

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체크 한 후, 원 내 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찾아봅시다.

1) 항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그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항목 내용 :

* 이유 :

2) 선택한 항목의 소항목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봅시다.

①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소항목 내용 :

* 사례 :



②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소항목 내용 :

* 사 례 :

※ 1), 2)의 내용을 토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의 내용과 이유,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항목의 내용과 이유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사례는 함께 공유하며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2.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의 내용 중 실천이 필요한 항목을 적어 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작성해 봅니다.

* 항목 내용 :

* 구체적 실천 방안 :

3. 2.에 작성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대로 「나만의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	확인
실 천 방 안	1		☐
	2		☐
	3		☐

(5)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tip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이 자가체크를 통해 원 내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자로, 8개의 항목,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크리스트 각 항목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 각 항목의 의미와 바람직한 실천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육 전에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의 해설서를 읽어보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교육 시, 원 내 필요한 항목을 다룰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혹은 동료 교사들이 선택한 항목을 다룰 수 있습니다.

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체크 한 후, 원 내 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찾아봅니다.

1) 항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그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어린이집 환경 및 운영, 보육교직원-영아 관계, 보육교직원 간의 협의 및 근로환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 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 교사 항목 선택 및 이유:

- [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 **이유?** 영유아의 보육과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들의 경우 언어 발달상 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사가 다양하여 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떻게 영유아의 의견을 보육과정과 운영에 반영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 설명:

-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의 어려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같은 항목의 또 다른 이유를 작성하신 선생님 계실까요? 혹은 다른 항목과 이유를 말씀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영유아의 의사표현 능력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의사반영 및 참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가 적절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능력에 맞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변화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선택한 항목의 소항목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봅시다.**①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각 교사들의 영유아 인권과 관련되어 자신만의 긍정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각 이야기를 포스트잇에 적어봅니다.

- 소항목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권리 존중(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며 다른 반의 사례 중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이나 공유하고 싶은 사례를 작성한 포스트잇을 모아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tip**

- 생존권: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행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해 존중을 받을 권리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참여 교사 소항목 선택 및 이유:**

- [2-1. 영유아가 만든 결과(작품, 사진, 노래, 블록, 구조물 등)에 대해 존중하며 적절히 게시되어 있다.]
- **이유?** 우리 반에서는 꼭 의도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블록 구성물이나 구조물 등 자유놀이시간의 놀이 결과물도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게시하고 있고, 공간의 제약이 따를 경우 사진으로 찍어 놓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 설명:

-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 잘 이루어진 사례를 포스트잇으로 모아봤습니다. 각 사례를 다른 반에서 실천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아이들의 반응이 있나요?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긍정적 실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②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항목과 그 이유를 작성한 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실천 사례 및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사례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되도록 교사의 가치관, 노력 등을 읽어줍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천이 어려웠던 사례 관련 소항목 선택 및 이유 :**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이유?**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하는 건 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반 전체 아이들의 동의를 얻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 설명:

- ○○선생님께서도 규칙을 정할 때 유아의 의견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혹은 다른 항목을 작성하신 선생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 때문에 실천이 어려울까요? 혹시 이 항목을 체크하시고 잘 실천하였던 사례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 계시실까요? 어떻게 하면 실천이 가능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실천되었던 사례 관련 소항목 선택 및 이유: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이유?** 우리 반에서는 아이들이 간식과 식사를 얼마나 먹을지 정할 수 있게 하였더니, 남기는 음식이 줄었고, 본인의 정한 양을 다 먹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먹기 싫어했던 음식에도 도전해보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토론 시 나왔던 긍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소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을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노력과 시각의 변화만으로도 실천 가능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의 내용 중 실천이 필요한 항목을 적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작성해 봅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작성 후에는 교사 간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실천 방안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의 해설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 '2'에 작성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대로 「나만의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본 워크시트에 작성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교사들이 작성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율 장학을 마무리합니다.

2) '참여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기

(1) 주 제

'참여권' 및 '참여의 사다리' 이해

(2) 목 표

- 아동인권에 대해 알고 4가지 기본권을 이해합니다.
- 교사가 생각하는 참여권에 대해 이야기 나눔으로써 참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참여권이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 참여의 사다리의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자 료

- 읽기자료1. [아동권리기본교육 매뉴얼] p.50~53, 세이브더칠드런, 2012¹³⁾
- 읽기자료2.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보육교사용] p.94~96, 보건복지가족부. 세이브더칠드런, 2009¹⁴⁾
- 워크시트, 펜

(4) 활동방법

① 교육 전 계획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각각의 교사가 아동인권과 참여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읽기자료 1, 2를 준비합니다.

② 교육 실시

미리 준비했던 읽기자료1, 2를 천천히 읽은 후 이야기 나눕니다. 도입은 영유아의 참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하지 않고, '교사인 자신이 생각하는 참여권은 무엇인지?', '참여권의 기회를 언제 가졌는지?', '참여권으로 내 인생의 변화가 연결된 경험이 있는지?' 등 일상에서의 사례 나눔을 유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읽기자료 2 중 [참여의 사다리]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점검하거나, [참여의 사다리] 단계에 적절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참여의 사다리 내용과 연결하여 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③ 교육 후

영유아 참여권과 관련한 사례 나눔 및 '참여의 사다리'를 통한 영유아 권리 존중 실천방법을 모색합니다.

워크시트

* 아동인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1.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2. 아동인권 4가지

- ①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②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③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3. 이 중, 어린이집에서 실천되기 어려운 기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보호자 및 성인인 부모, 교사가 영유아를 대신 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라고 여겨지는 바, 영유아의 참여권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4가지 기본권 중 '참여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교사인 내가 생각하는 참여권

참여권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참여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누기

1) '참여권' 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여권을 경험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참여권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참여권 및 참여의 사다리

1. 영유아의 참여권이란?

1) 영유아에게 참여권을 준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2) 영유아의 참여 사례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참여의 사다리(읽기 자료 2)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참여의 사다리를 읽고 설명해봅시다.

참여의 사다리	
참여의 사다리 단계	☐ 1단계 참여조작 ☐ 2단계 피상적 참여, 장식적 참여 ☐ 3단계 명목상 참여 ☐ 4단계 기획된 행사의 자발적 참여 ☐ 5단계 기획된 행사의 실질적 참여 ☐ 6단계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 ☐ 7단계 자기주도적 참여 ☐ 8단계 완전한 참여

2) 참여의 사다리를 읽고, 새롭게 접한 느낌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세요.

(5)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 아동인권에 대해 알아보시다.

모든 인간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유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인권의 주체자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제연합(UN)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1989. 11. 20), 아동은 권리인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2. 아동인권 4가지¹⁵⁾

- ①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② (발달권) :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③ (보호권)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참여권)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이 중, 어린이집에서 실천되기 어려운 기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동 시 참고하세요.

교사들이 생각하는 실천이 어려운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다시 한번 영유아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에는 교사의 많은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중 참여권을 다루게 됨을 설명하여 주세요.

15) 본 책자 p.52. 참조



* 영유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보호자 및 성인인 부모, 교사가 영유아를 대신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영유아의 참여권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4가지 기본권 중 ‘참여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ip

아동권리 영역 중 ‘참여권’은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현장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참여권’이 영유아가 가진 권리라기보다는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성인이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여권’에 대해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토론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교사인 내가 생각하는 참여권

1. 참여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누기

1) ‘참여권’ 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활동 시 참고하세요.

- ① 참여권에 대해 생각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조직생활의 경험이나 친구 또는 가족 간 의사결정 과정에 나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이 있었는지?”로 질문을 바꿔도 됩니다.
- ② 떠오르는 장면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장면’, ‘자신의 의견이나 선택을 받아들이라고 다루는 모습’, ‘큰 목소리로 의견을 드러내는 장면’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침묵’하는 모습을 장면으로 이야기한 교사가 있거나, 떠오르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나눔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지?”, “침묵도 참여의 방법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 ③ 대체로 ‘침묵’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이 누적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전자라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가질수록, 후자라면 선택을 위한 여러 정보를 많이 알수록 결정할 수 있기에 침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침묵’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여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여권을 경험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참여권이 학생인 ‘나’에게 주어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경험은 주로 투표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투표권 외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족의 대소사에 나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적이 있는지, 동아리 활동이나 조직 내 회의에서 참여자의 의견을 듣는 새로운 방법을 경험했는지를 질문해도 좋습니다. 참여권은 공식적인 투표의 방법 뿐 아니라 브레인스토밍, 찬반토론, 내가 주장하는 의견을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설명 등 다양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참여의 방법을 영유아에게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여권을 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참여권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내가 당선되는 경험이거나 내가 지지하는 친구 또는 의원이나 대통령이 당선된 경험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감정(정서)의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좋은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로 인지되었던 사례는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내가 지지했던 친구가 반장이 되더니 다른 모습이 되거나, 정책을 보고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더니 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전개될 때는 부정적인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다음에 같은 기회가 주어지거나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대안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미래에 주어질 참여에 대한 준비로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입니다.



* 참여권 및 참여의 사다리

1. 영유아의 참여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영유아에게 참여권을 준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영유아에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물어보는 것, 여러 놀이나 활동 중 어떤 것을 원 하는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참여권 개념이 설명된 [읽기자료1]을 참조하세요.

활동 시 참고하세요.

- ① [읽기자료1] 아동권, 참여권 개념, 참여권을 통한 배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아동을 보는 관점: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
 - 참여권 개념: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
 - 참여권을 통한 배움: 사려 깊고 책임 있는 결정
- ② 참여권을 선택권으로 좁혀 생각한다면, 어떤 것은 선택권을 주고, 어떤 것은 선택권을 줄 수 없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 외의 상황에서는 영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입니다.
- ③ ②번의 설명처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어린이집에서는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활동 전에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증과 호기심의 많은 아이가 바깥놀이에서 뽀족한 돌을 집어 와서 가지도 놀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조금 더 아이들의 참여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2) 영유아의 참여 사례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낮잠을 거부하는 영유아에게 낮잠 자는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지원했던 경험부터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지, 누구와 짝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묻고 아이들의 참여에 따라 진행했던 경험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교사 주도 참여방법이란?

참여권을 줬더니 다양한 의견이 나와 누구의 의견도 들어줄 수 없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같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툼이 벌어지거나 짝하기 싫은 친구와 짝이 되었다고 우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이런 상황들은 참여권의 방법이 교사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 수 없어 몇몇의 아이들에게는 일방적인 결정을 전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의 교사 주도의 예로 교사가 영유아와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약속은 하고, 아이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다투기 때문에 선택이나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② 영유아의 참여방법은?

영유아가 참여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여유롭게 시간을 계획하고 영유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참여 과정 중 영유아의 침묵이나 선택을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영유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참여의 과정'을 즐겁게 여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참여의 사다리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참여의 사다리(읽기 자료 2)를 읽고 설명해봅시다.

참여의 사다리 각 단계에 대해 읽은 뒤 참여 교사 각각 한 단계씩 맡아 다른 교사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① ‘참여의 사다리’ 단계가 갖는 의미?

‘참여의 사다리’는 참여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동안 단순히 참여권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면 진정한 참여를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단계를 잘 이해한다면 실천하거나 보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자료를 읽고 바로 이해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어린이집 상황에서 영유아는 몇 단계의 참여를, 교사는 몇 단계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③ 참여권과 관련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면 자연스럽게 1회기로 끝내지 않고, 토론 시간을 다음 회기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 참여의 사다리를 읽고, 새롭게 접한 느낌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세요.

활동 시 참고하세요.

① 참여권의 첫 단계는 ‘아직도 영유아에게 참여권이 권리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 느끼는 것입니다. 더불어 완전한 참여의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아동관의 변화, 양육감수성이 반영된 문화와 친인권적 사회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에 개별의 교사가 감당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② 교사도 조직 내에서 ‘참여의 사다리 8단계’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사회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좌절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배운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인권감수성을 접할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인지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인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려면 교사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사 자신이 인권친화적 인식으로 영유아의 인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영유아의 참여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할 때 교사는 자신의 불편함보다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읽기자료 1

세이브더칠드런, 2012. 『아동권리기본교육 매뉴얼』 p.50.

참여권

1) 참여권의 정의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이며,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이를 참여권이라고 한다. 아동은 참여권을 통하여 사려 깊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의 의견 존중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전반적인 측면 뿐 아니라 모든 개별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용한 일반원칙을 제공해준다. 제12조 1항은 국가에게 다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즉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모든 아동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아동의 관점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제12조 2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 행정적 절차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광범위한 법원의 심리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동의 교육, 건강, 계획,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도 적용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권리의 적극적 주체자로 간주되어야하고 협약의 주요목적인 인권을 아동에게 적용시키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제12조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제13조), 그리고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제14조), 모임의 자유(제15조)와 함께 아동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기의 관점, 감정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참여와 참가의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참가란 모임이나 단체, 일에 관계하여 ‘그 현장에 존재하는’ 수동적인 의미인 반면, 참여란 모임이나 단체, 일에 ‘끼어들어 관계한다는’ 의미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읽기자료 2

보건복지가족부·세이브더칠드런,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p.94~96.

유아는 자신의 성장과 발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준에서부터 아동들 스스로 주체적인 모임을 조직하여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까지 참여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동의 참여활동에 대한 성인들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이옥, 하승민, 2002). 일본의 전설적인 만담가인 고콘데이 신초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남을 성장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성인들이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유아의 참여에 대한 권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나가사키카츠노리, 2002).

Hart(1992: 김정래, 1999, 재인용)가 제시한 ‘참여의 사다리’는 아이와 어른 주도권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느냐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기획과 참여에 있어 누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유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다. Hart는 참여의 사다리로 8단계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 1

‘참여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은 유아들이 행사의 주체라고 위장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아는 참여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유아들은 자신이 참여한 것인지, 왜 참여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유아들의 그림을 활용하지만, 정작 그림을 그린 유아들은 자신의 그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 단계2

‘피상적인 참여’, ‘장식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참여하나 그 의도를 모르고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아들에게 똑같은 티셔츠를 입히고 춤추고 노래하게 하는 행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행사의 기획은 물론이고 행사의 주체도 아이들이 아닌 성인이다. <단계1>과 다른 점은 성인들이 유아들이 행사의 주체라고 위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 단계3

‘명목상의 참여’라 할 수 있다. 성인은 유아들의 의견을 들지만 유아들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사의 기획 과정상으로 보면, 성인이 참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아이들은 참여의 의미를 모른다. 참여선정기준이나 아이들의 의견과 관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라고 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처럼 위장할 수 있다.

▶ 단계 4

‘기획된 행사의 자발적 역할 참여’라 할 수 있다. 기획은 어른이 하고, 유아들은 참여의 의미를 인지하며 기획된 행사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 참가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어 주어진 역할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하나 행사의 주체가 아니므로 <단계4>는 여전히 ‘명목참여’의 요소를 담고 있다.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 보이 스카웃 대원이 동원되어 행사의 보조적 역할(이를 테면, 질서유지나 쓰레기 치우기)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 단계의 예이다.

▶ 단계 5

‘기획된 행사의 실질적 참여’라 할 수 있다. 참여 행사의 기획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단계이다.

▶ 단계 6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라 할 수 있다. 기획은 성인이 주도하지만, 기획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은 유아들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주어진 신문 제작의 틀(성인 기획)에서 유아들이 편집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취재와 제작도 유아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이 단계의 예이다.

▶ 단계 7

‘자기주도적 참여’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기획조차도 아이들이 하는 단계이다.

▶ 단계 8

‘완전한 참여’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유아들과 어른이 실질적인 참여의 정도를 대등하게 공유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지만, 의사결정을 어른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닌 듯하다. 영국의 섬머힐학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Hart의 참여사다리 평가표는 교사들에게 교사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유아들의 참여하여 주도권을 가졌는지 점검해보도록 제시하였다. 활동을 누가 기획하였는지, 의사결정의 과정은 누가 주도하였는지,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점검함으로써 유아의 주도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는 분명 짧은 시기에 비해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보이는 시기이나 유아들은 아직까지 성숙에 도달하기 위한 긴 여정의 중간에 놓여 있다(Elkind, 1998). 유아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유아들이 주도성을 갖도록 하는지는 그 교실의 교사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끊임없이 유아를 존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도서를 활용한 자율장학

(1) 주 제

영유아의 주도성을 존중하는 교사

(2) 목 표

- 놀이 활동 중 교사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영유아와 교사 각자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 놀이 활동에서 영유아의 주도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3) 자 료

- 〈어린이집에서의 권력과 정서〉, 학지사, 제3장 권력 中 p.87~88
- 〈놀이지도, 아이들을 사로잡는 상호작용〉, 보육사, 제10장 정서발달 지지하기 中 p.355~361
- 해당 워크시트, 포스트잇

(4) 활동방법

① 교육 전 계획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이전에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들에게 교육주제와 사전에 읽어야 할 도서를 공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들이 모둠별(7명 이내)로 모여 앉습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워크시트 1, 2〉를 사용합니다.
- 워크시트의 사례를 읽고,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 메모한 내용들을 모둠별로 모인 교사들이 공유하며 논의합니다.

③ 교육 후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사 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워크시트 1

영아들은 교실을 꾸미기 위해 다람쥐를 만들고 있었다. 교사는 이를 전에 다람쥐 모양의 종이를 오려 놓았다. 어제 영아들은 각자 한 장씩 다람쥐 종이를 갈색으로 색칠하였다. 오늘 영아들은 다람쥐꼬리에 면 공(cotton-ball)을 풀로 붙일 것이다. 칼리의 순서가 되었다. 교사가 꼬리 부분에 풀칠하는 동안 칼리는 교사 옆에 서 있다. 그 후 교사는 면 공이 들어있는 가방에서 다섯 개의 공을 꺼내어 옆에 서 있던 칼리의 손에 건네주었다. 칼리는 공 하나를 들고 풀칠이 되어 있지 않은 꼬리 부분에 그 면 공을 붙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다. “여기에 붙여야지, 칼리.” 교사는 면 공을 붙일 자리를 가리켜 준다. 교사는 자신의 손으로 칼리의 손을 잡고 꼬리 쪽에 면 공을 붙여 주었다. 잠시 후 교사는 처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칼리에게 나머지 공들을 쥐여 준다. 그리고 교사는 다섯 개의 면 공을 꼬리에 붙일 때까지 칼리의 손을 신체적으로 조작하면서 지시를 반복한다. 그러고는 “끝났다. 가서 놀아.”라고 말한다. 그 후 교사는 로렌을 호명한다. 로렌이 책상에 올 때쯤 교사는 바쁘게 다람쥐의 꼬리에 풀칠한다. 로렌이 책상에 놓여 있는 풀을 잡으려 한다. 교사는 풀을 치우면서 “그 순서가 아니야.”라고 말한다. 로렌이 기다렸다. 면 공을 붙일 차례가 되자, 교사는 칼리에게 했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한다. 잠시 후 로렌이 “왜 이거 만들어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교사는 “네가 면 공을 풀칠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니까.”라고 대답한다.

〈Robin Lynn Leavitt(2014), 어린이집의 권력과 정서, 학지사〉 中 p.87-88

이 활동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순서대로 써보세요.)

활동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순서대로 써보세요.)

영아가 활동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영아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워크시트2

교사가 학부모가 방문하는 날을 위해 교실에 전시할 학생들의 작품을 고르고 있다. 교사는 주위환경을 밝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할 색채가 풍부한 그림을 찾고 있다, 교사는 한 아동이 자기가 찾고 있던 색감이 풍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교실에 전시해도 되는지를 묻는다.

교 사: 다 마친 후에 네 그림을 걸어도 되겠니?

아 동: 네. 좋아요.

교 사: 좋아. 네 그림이 끝나면 선생님한테 알려줘. 이 그림을 그려서 저기에 걸을 거야. 걸고 싶은 장소는 네가 고를 수 있단다.

아 동: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그림을 그린다.)

교사가 그 영역을 잠시 비운다. 교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까는 밝았던 그림이 지금은 약간 어두워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아 동: 저는 모든 색을 다 쓸 거예요. 보이죠?(붓을 검정 물감에 담근다.)

교 사: 그래. 재미있구나.

아 동: 여기에 검정색을 칠할 거예요.(검정 줄을 그려 넣는다.)

교사는 교실 전시물에 첨가하려고 했던 밝은 색 그림의 색이 달라진 것에 대해 실망했지만 입을 다문 채, 아동이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지켜본다.

〈Trawick-Smith, J.(2012). 놀이지도: 아이들을 사로잡는 상호작용. 다음세대.〉 중 p.358

유아는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교사는
유아가 활동하는 방법을
존중해주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이 상황에서
평소의 나라면
어떻게 반응 했을까요?

(5)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1. 도서를 읽고 난 뒤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고, 각 교사들의 실제 사례를 공유한다.

책에는 영유아의 정서발달 중 “주도성” 발달을 위한 교사의 개입방법이 사례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생각나는 점들을 나누어보고, 오늘의 장학 내용을 소개하며 자율공부모임을 시작합니다.

-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었나요?
- 책의 사례들을 보고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나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태도를 통해 영유아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존중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점차 확대되어 영유아 권리 존중의 기반이 형성됩니다. 교사는 그 어떤 역할보다도 영유아를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여 주도권을 주고 돕는 자의 역할을 선택할 때 영유아의 주도성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리 읽어 온 책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서 영유아의 주도성 발달을 돕는 교사 개입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례를 통해 영유아와 교사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를 고려하여 영유아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실천적인 개입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워크시트 1〉 사례를 읽고, 영아와 교사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본다.

워크시트의 사례에는 교사의 지나친 개입으로 영아의 놀이 의도를 통제하는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의도와 영아의 의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의도가 통제된 영아의 감정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 이 활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 영아가 놀이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영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례에서 보인 교사의 활동방법

이 사례에서 칼리와 로렌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아들의 의도가 다른 영아들에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의도성은 교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인인 교사는 칼리와 로렌의 개별성과 생각은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겼고, 영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영아의 놀이를 개입하고 통제하였습니다.



3. <워크시트 2> 사례를 통해 평소 나의 모습을 점검해본다.

워크시트의 사례에는 교사의 의도와는 다른 놀이방법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통찰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방법은 무엇일까요?
- 평소의 나라면 어떤 놀이방법을 기대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이상황에서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다.

1) 전체적 맥락에서 놀이 상황을 민감하게 보았는가?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주도권은 꼭 교사가 가져야 하는가?

영유아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유아는 세상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할 때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공감적인 배려가 있는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먼저 들여다보지 않으면 영유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감은 판단이나 관찰의 태도를 의미하며, 타인의 요구가 진짜든 아니든 간에 타인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평소 어린이집의 일상에서 영유아의 주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모색해본다.

사례에서 보여준 교사 지원방법을 살펴보고, 교사 간 토론을 통해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1) 사례를 통해 각 교사들이 영유아의 주도권을 존중해주었던 교사의 지원방법을 분석하고, 교사 자신의 아이디어를 워크시트지에 적어봅니다.

- 이 사례에서 교사는 아이의 놀이방법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교사가 아이들의 주도적인 놀이를 존중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례에서 보인 교사의 지원방법

위의 사례에서 교사는 유아에게 성인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교사는 다른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유아에게 한 장의 종이를 다 채우도록 하고 싶었을 것이나 이러한 유혹을 잘 참았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창의적인 작품에 주도성이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고, 유아를 제한하지 않고 시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유아의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각 교사가 생각한 영유아의 주도성을 존중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봅니다.

- 각 교사들이 생각한 각 방법을 포스트잇에 적어 모아보며 생각을 공유합니다.
- 적용 시 어려운 점은 왜 적용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 적힌 포스트잇을 순차적으로 제거합니다.
- “이 중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 있나요?”
- 실천하기 어렵다면 교사와 영유아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여 왜 어려운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점 때문에 어려울까요?”
- 제거하고 남은 지원방법 중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봅니다
“남은 방법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교사 지원방법의 예

- 영유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반응(수용)합니다.
- 영유아의 감정을 표현해줍니다.
- 영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 반응하고 지지합니다.
- 교사가 선택한 정확한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시도와 경험들을 격려합니다.
- 또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영유아의 개인차와 다름을 인정합니다. 등



5. 사례를 통해 영유아의 주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율공부모임을 마무리합니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가 삶의 주체자로서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유아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의사표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제공됨으로써 영유아는 능동적인 힘과 조절 능력이 발달합니다. 교사는 그 어떤 역할보다도 영유아를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며 지지하고 돕는 역할로서 영유아의 주도성 발달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성 발달을 통해 교사는 영유아의 주도권을 존중하고 영유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 동영상 활용한 자율장학

(1) 주 제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 나누기

(2) 목 표

-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합니다.
- 영유아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3) 자 료

- 영상1. <인성채널-e 당신의 듣기 점수는?>. EBS.
- 영상2. <지식채널-e 눈맞춤의 힘>. EBS.
- 해당 워크시트

(4) 활동방법

① 교육 전 계획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안내서를 미리 숙지하고 관련 영상과 워크시트를 준비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참여한 교사 모두는 워크시트에 제시된 영상을 감상합니다.
- 워크시트에 기록하면서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 참여한 교사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교육 후

- 영유아를 존중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적용해 봅니다.
- 다음 모임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영유아와의 소통에 대한 생각 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a07U2D00PMA>

인성채널 e - 당신의 듣기 점수는?

영상 속 한 줄 MEMORY

“대화의 3분의 2를 상대방과 그가 하는 말을 생각하는 데 쓴다.”

— 에이브러햄 링컨 / 미국 16대 대통령

1. ‘나의 듣기 점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듣기? 당신의 듣기 점수는 몇 점입니까?

— 내가 만약 챌린저호 책임자라면, 기술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2) 교사로서의 나의 듣기? 영유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 기억에 남는 영유아의 말이 있습니까?

ex, “포기는 대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게으름이에요.”(만3세 유아)

— 오늘 하루 영유아에게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주로 말하는 것이다.” (Meier, 1995)

2.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영유아와 의사소통함에 있어 나의 강점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영유아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왜 어려울까요?

아이 생각이 어른 생각보다 좁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과 다를 따름입니다.

아이들은 지성으로 사고하지 않고, 감성으로 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 아누슈 코르착의「아이들」



영유아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

영유아의 말 특성 이해하기	- 영유아의 말은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발달 특성을 갖고 있다. -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수시로 질문하는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교사는 이를 귀찮아하거나 짜증 내지 않고 성의 있게 대답해 줄 것이다. - 영유아가 말을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이해하는 교사는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를 낮추고 단순한 단어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며, 영유아가 부정확한 말투로 말하더라도 정확한 말로 바꾸어 말해주거나 완성된 문장으로 다시 말해줄 것이다.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이기	- 영유아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무엇이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 영유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교사는 영유아가 말할 때 진심 어린 태도로 관심을 보이며, 영유아의 말을 인정하고 따뜻한 말과 신체적 접촉, 수용의 눈빛 등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교사의 주도권을 줄이고 질문하기	- 교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수업형(lesson)' 대화 방식에서 영유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답하는 비형식적인 대화 방식인 '토론형(discussion)'으로 전환될 경우 영유아를 존중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유아의 대답 기다려 주기	- 교사는 영유아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답을 먼저 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계획된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설명'하고 마는 것이다. - 개방형 질문의 경우 영유아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특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말을 많이 하지 않던 영유아도 말을 시작하고 흥미 있는 생각을 나타내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영유아의 대답에 평가적 표현 줄이기	- 바람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잘못(misbehavior)'이라기보다 '실수(mistaken behavior)'로 받아들이고 위협이나, 비난, 비교, 무시 등의 말투를 자제해야 한다. - "맞아", "잘했어" 등의 긍정적 평가조차 영유아의 대답이 교사의 판단을 받는다는 암시를 주므로 영유아의 대답에 대해 평가적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 영유아의 대답에 대해 "고맙다"라고 간단히 말하거나 미소나 고덕임 같은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긍정어 사용하기	- 부정어나 통제어보다는 긍정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시물을 만지고 있는 영유아에게 "만지지 마"라고 말하면 영유아는 만지는 행동을 중단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빨리 판단하기 어렵다. 대신 "눈으로만 보자"라고 하면 손으로 만지는 대신 눈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흥미는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적절하게 칭찬하기

- (칭찬을) 기분을 북돋워주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영유아의 행동을 안내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일반적인 칭찬 어휘를 사용하는 것("참 착하구나.")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격려("~을 잘 정리했구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명과 선택권 제공하기

- 영유아가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에도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해야 한다.

- 영아가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더라도 교사는 "코트 없이 나가기에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라는 식으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함을 이유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영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골라볼래?"와 같이 영아에게 선택권을 주면 영아는 자신이 힘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 출처 : 이재연 외(2015). 아동권리 0-8. 교육과학사

나의 다짐 기록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a07U2D00PMA>

지식채널 e - 눈맞춤의 힘

영상 속 한 줄 MEMORY

"사람의 눈은 허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 랄프 왈도 에머슨



(5)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1. 영상을 감상한 후 평소 나의 듣기 자세에 대해 돌아봅니다.

영상을 감상한 후, 각자 평소 자신의 듣기 자세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의 듣기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거나, 듣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듣기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 나눕니다.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듣기? 당신의 듣기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일상 속 나의 듣기 자세를 점검해보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면 영상 속 사례를 활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는 목적은 듣기의 점수가 높고 낮음 또는 선택한 방법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교사로서의 나의 듣기? 영유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영유아의 말을 적어보거나 오늘 하루 영유아에게 들은 말을 떠올려봅니다. 참여 교사들이 각자 기록해보고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영유아의 말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 특유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바쁘게 진행되는 하루일과 속에서 교사로서 영유아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2.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니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 간에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으로, 영유아는 등원에서 하원까지 교사와 많은 의사소통을 합니다. 영유아와 의사소통하는데 있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유아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1) 영유아와 의사소통함에 있어 나의 강점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영유아와 의사소통함에 있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또한 교사로서의 성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강점을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ex,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이해, 영유아를 향한 사랑, 존중, 공감, 경청, 기다려주기, 관찰, 격려 등)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영유아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왜 어려울까요?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이해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코르착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의 경우는 제스처, 눈길, 미소와 같은 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다 점차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해나가는 언어발달 과정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해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살펴보고 자유헌부 모임 이후 아이들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나의 다짐을 기록해봅니다. 마무리하며 영상을 감상합니다.





4. 훈육 주제 자율장학

1) 급·간식 시간 훈육 사례 나누기

(1) 주 제

급·간식 시간 훈육 사례 나누기

(2) 목 표

- 영유아 행동에 숨겨진 의미 파악과 교사의 실제 훈육 방식 및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 영유아의 적응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 교사의 훈육 방식 및 기타 역할을 모색합니다.

(3) 자 료

-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2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p.19~22
- 해당 워크시트

(4) 활동방법

① 교육 전 계획

1) 사례 선정

워크시트에 제시된 가상 사례 혹은 본 주제와 관련된 어린이집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2) 보충 설명 자료 활용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함께 배워요’ p.19~22에 실린 내용을 보충 설명 자료로 활용(소개)하기 위하여,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참여한 교사 모두는 안내서와 워크시트에 제시된 순서대로 자료를 읽어 봅니다.
- 실제 사례를 나누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기록해봅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참여 교사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참여 교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때,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가급적이면 참여 교사들을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교육 후

교육에서 나눈 훈육 원리를 적용하여 영유아와 상호작용해보고, 기회가 되면 다음 모임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사례 1. 영아(22개월, 여아)

학기 초 영아는 교사가 자신의 도시락에 싫어하는 반찬을 담아주려고 하자 담는 부분을 가리며 “안 먹어.”라고 말한다. 교사가 안 먹어도 괜찮으니 다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수긍하였으나, 식사 중 건더기를 제외한 국물과 밥만 먹는다. 교사가 반찬 한 가지와 밥 한 번씩을 먹어보라고 권유하며 먹여주려고 하였으나, 영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끝내 거부한다. 혼자서 다섯 번 정도 밥과 국을 떠먹은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역할영역에 있는 인형을 꺼낸다. 교사가 영아에게 다가가서 밥을 다 먹고 정리한 다음에 놀 수 있다고 차분히 설명한 후 다시 자리로 데려가서 앉혔으나 금세 교사를 피해 교실을 뛰어다닌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혼자서 숟가락질을 잘 하는 편이나, 식사 시간에 자주 돌아다니는 영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교사는 고민이 된다.

사례 2. 유아(36개월, 남아)

적응기간이 지난 다음 점심 식사를 정식으로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유아는 일주일 동안 밥을 제외한 반찬과 국물만 먹는다. 등원 때부터 배식을 할 때까지 수시로 “밥 진짜 조금만 주세요.” 한다. 식사시간에는 밥을 남긴 채로 숟가락을 들고 옆 친구와 장난을 칠 때가 많다. 밥과 반찬을 함께 먹자고 달래서 한입 넣어주었더니, 헛구역질을 하면서 밥을 뱉어버린다. 교사는 밥을 뱉으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 세 번은 꼭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후로 유아는 교사 몰래 밥을 바닥에 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그만 먹을래요. 배 아파요.”하며 정리해놓은 식판에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의 식판을 올려놓고 놀이영역으로 가버리거나, 식판과 수저를 그대로 둔 채로 밥을 다 먹은 친구들과 놀기도 한다. 반찬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유아가 유독 밥만 먹지 않고, 간식을 먹을 때는 한 번도 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다.



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4) 3)의 방법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선택한 방식 :		
	영유아	교사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영유아를 반복하여 관찰하고 부모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집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향 요인에 따라 교사는 훈육방식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① 발달적 특성	☐ 미세근육 발달 수준(씹기, 삼키기, 잡기 등) ☐ 언어적 상호작용(의사 표현, 이해 수준 등)
② 기질적 특성	☐ 감각적 예민성 ☐ 새로운 자극에 대한 관심 표현 정도 ☐ 낯선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적응 정도
③ 경험 정도	☐ 혼자 숟가락질을 해본 경험 ☐ 음식 재료에 대한 경험 ☐ 정해진 자리에서 먹는 습관 ☐ 집단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 경험
④ 당일 컨디션	☐ 등원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 사건 ☐ 오전 일과 중 영유아의 기분 변화에 영향을 준 만한 사건 ☐ 감기 등 질병
⑤ 기타	☐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가족 환경	① 구성원 특성 ☐ 아침 식사 방식(시간대, 양, 종류 등) ☐ 부모의 편식이나 식습관
	② 양육방식 ☐ 부모의 지도(편식 지도 등)
	③ 기타 ☐
기관 환경	① 급·간식 시간 전후 ☐ 활동이나 놀이에 대한 관심 및 집중 정도 ☐ 활동이나 놀이를 지속하는 시간 부족
	② 배식 방식 ☐ 교사 일괄 배식 ☐ 유아에게 선택권 제공
	③ 식사 환경 ☐ 정해진 자리 없음 ☐ 교구나 놀이영역의 접근성
	④ 지도 교사 ☐ 지도 교사 인원 부족 ☐ 지도 교사의 식습관
	⑤ 기타 ☐



3. 급·간식 시간에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1) 영유아가 이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골고루 다 먹어야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영유아는 급·간식 시간을 무서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주로 오랫동안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종종 토하거나 버리기와 같은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예측(기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시간을 긍정적으로 견디고 있는 영유아를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2)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거나, 행동이나 표현에 숨어있는 감정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면, 영유아는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감정을 반영해주면, 영유아는 교사를 통해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교사의 제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거나 감정을 반영해주는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3)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영유아를 지도하고, 교사 또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가 늘어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때 더욱 반항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교사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만 3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선택권을 줍니다. 유아는 대개 자신의 선택에 따른 행동을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4) 영유아에게 연습과 반복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선택한 음식을 성공적으로 먹었을 경우, 선택과 행동에 대해 격려해주면 됩니다. 실패했다라도 '연습'을 강조해주어 영유아가 다음에 다시 도전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식사시간 전후로 어떤 놀이나 활동을 하는지, 식사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해봐야 합니다.

식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6) 가정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할 정보와 요청해야 할 도움을 적어봅시다.

(5)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워크시트에 제시된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이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영유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 교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가상 혹은 실제 사례 내용의 일부분을 표시해가면서 영유아의 입장이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가상 사례 1을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 교사 활동: 사례 1의 첫 번째 문장 밑줄 긋기 ➡ ‘처음 본 반찬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유아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 설명: 만 2세 이후 유아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를 한 다음에 상대의 반응이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즉, 정말 싫다기 보다는 ‘잠깐만요.’하고 나름의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예민한 영아라면 이러한 특성을 더욱 강하게 보입니다.

그룹 내 아이디어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를 알려준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을 밑줄 그어볼 수도 있습니다.

▶ 사례 1의 영아

- ① “혼자서도 숟가락 잘 쓸 수 있어.”
- ② “밥 먹는 것 보다 강아지 인형이랑 노는 게 좋아.”

▶ 사례 2의 유아

- ① “끈적끈적 밥이 싫어.”
- ②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해서 미워. 토할거야. 버릴거야.”
- ③ “나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시금치도 잘 먹을 수 있어.”
- ④ “요구르트 2개 먹어서 배가 안 고프단 말이야.”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참여 교사들이 구체적인 표현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p****밥을 바른 자세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기대하는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하고 되물어봅니다. 참여 교사들이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 방해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워크시트의 2)과 3) 영역을 작성할 때, 가상 혹은 실제 사례 내용의 일부분을 표시해가면서 교사의 기대나 시도한 방법을 추측해보거나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참여 교사들이 각자 기록해 보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3)의 방식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3)에서 찾은 방식 혹은 참여 교사들의 실제 지도 방식 1가지를 각자 선택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결과들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쪽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기록 후 참여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칸을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선택한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가급적 삼가합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는 목적은, 선택한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자 다르게 반응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영유아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참여 교사들이 발견하거나 추측한 요인들을 공유해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중복 체크를 할 수 있으며 체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 1~2가지를 함께 선정해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 ① 감각적으로 예민한 기질의 영유아는 새로운 음식의 색깔, 모양, 냄새, 질감 등을 낯설어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를 통해 영유아의 식재료 경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사지도를 할 때는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한 영유아의 불편한 마음을 공감해 준 다음에, 이전에 먹어본 재료나 조리 방법과 어떤 점이 비슷한 지를 설명해 준다.
- ②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쓰이는 근육 혹은 손가락 사용에 쓰이는 손가락 근육과 같은 미세근육 발달이 저조하거나 눈과 손의 협의 능력 발달이 저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사 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밥 먹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집에서도 비슷한 모습이라면, 미세근육 발달이나 눈과 손의 협응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활동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 ① 아침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 점심 식사시간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침 식사가 늦었다면, 등원 후 간식 시간과 점심 시간 사이 간격이 짧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부모와 의논해보거나 점심 식사의 양을 영유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한다. 항상 부모가 먹여줬다고 하면 혼자 먹는 습관이 생기지 않아서 식사 속도가 느리거나 식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식판에 있는 음식들 중에서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을 스스로 골라보게 하거나, 혼자 손가락질 하는 영유아의 행동을 지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 ② 식사 전 놀이시간에 충분히 놀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영역으로 가려고 하거나, 제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자세가 바르지 못할 수 있다. 직전 시간에 영유아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 했는지 관찰해야 한다. 식사 전에 영유아의 놀이가 끝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거나, 밥을 먹은 이후부터 하원 전까지 시간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보충 시간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3. 급·간식 시간에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부연설명을 함께 읽은 후 내용을 작성하고 공유하도록 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아래 제시된 예시를 몇 가지 알려준 후, 참여 교사들이 예시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을 떠올려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각 예시 표현들을 활용하여 짧게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 영유아가 이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식단표를 보고 미리 음식, 재료 등을 보여주거나 설명해주기.

“내일 점심에는 이렇게 생긴 당근이 이런 모양을 하고 감자 친구와 함께 ○○를 기다릴거야.”

얼마만큼 먹어볼지, 어떤 것을 먹을지 예상해보기.

“내일은 ○○가 어떻게 반겨줄까? 코로 호흡~하며 냄새를 맡아볼까? 꼭꼭 몇 번 씹어볼까?”

영유아의 선택(개수, 양)을 적극 지지해주기

“아~ 그 정도는 ○○가 먹어볼 수 있겠다는 거지?” “아~ 이거는 한 번 먹어보려고 결정했구나.”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작은 걸 발견했니?”

2)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거나, 행동이나 표현에 숨어있는 감정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사례 1 영아의 행동을 읽어준다면,

“시금치 처음 보는 거지. 그래서 싫어요. 주지 마세요~ 하고 손으로 가리는거구나.”

사례 1 영아의 감정을 반영해준다면,

“강아지 인형이랑 놀고 싶었구나.” “강아지 인형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어요 하는 거지.”

3)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반찬 개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중에서 2가지는 꼭 먹어야 튼튼해져. 어느 반찬을 먹어볼래?”

모든 종류를 골고루 먹어야 하나, 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교사가 양을 보여주며, “이만큼 먹을까? 아니면 이만큼 먹어볼까?”

“이제 5살이니까 조금씩 골고루 먹어보는 연습을 해보자. 먹어볼 수 있는 제일 작은 조각을 찾아볼까?”

4) 영유아에게 연습과 반복의 중요성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유아 스스로 양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먹었을 경우,

“○○이가 먹겠다고 한 김치 한 조각을 잘 먹었네. 어땠어? 어떻게 하니까 꿀꺽 하고 먹을 수 있었어?”

“오늘은 ○○이가 (반찬 종류)를 처음으로 먹어본 날이네. 우리 오늘을 꼭 기억하자. 선생님도 여기에 써놔야겠다.”하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교사 수첩에 기록 남기기.

유아 스스로 양을 선택하였으나 남겼을 경우,

“처음에는 먹어보려고 했는데, 막상 먹어보려고 하니까 아니었어? 그래, 우리 내일 다시 연습해보자. 그래도 오늘 먹어봐야지 하고 생각한 건 멋졌어.”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식사 공간과 놀이 공간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밥을 다 먹은 유아들이 놀고 있는 장면을 보거나 참견하느라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식사 전 놀이나 활동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주의 전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는 가급적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사 전 주어진 놀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아 ~ ○○이가 (놀이)를 더 하고 싶었구나. (놀이)가 재미있었나보네. 그런데 지금은 점심을 먹는 시간이야. 점심을 다 먹으면 (다음 활동) 시작하기 전 까지 놀이 시간을 더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점심을 먼저 먹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6) 가정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다음 2가지를 참여 교사에게 강조해야하며,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첫째, 부모와 소통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여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의 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어린이집 등원이나 단체생활이 처음인 영아와 그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일과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안내를, 영아에게는 반복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아침을 늦게 먹고 오거나, 간식을 많이 먹고 올 경우 점심 식사 지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시간이나 양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골고루 먹는 것 보다 스스로 즐겁게 먹는 것을 지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유아의 연습 과정을 교사와 부모가 함께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또래 갈등(친구 때리기) 훈육 사례 나누기

(1) 주 제

또래 갈등(친구 때리기) 훈육 사례 나누기

(2) 목 표

- 영유아 행동에 숨겨진 의미 파악과 교사의 실제 훈육 방식 및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 영유아의 적응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 교사의 훈육 방식 및 기타 역할을 모색합니다.

(3) 자 료

-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2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p.49~52
- 해당 워크시트

(4) 활동방법

① 교육 전 계획

1) 사례 선정

워크시트에 제시된 가상 사례 혹은 본 주제와 관련된 어린이집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2) 보충 설명 자료 활용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함께 배워요’ p.49~52에 실린 내용을 보충 설명 자료로 활용(소개)하기 위하여,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참여한 교사 모두는 안내서와 워크시트에 제시된 순서대로 자료를 읽어 봅니다.
- 실제 사례를 나누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기록해봅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참여 교사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참여 교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때,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가급적이면 참여 교사들을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③교육 후

교육에서 나눈 훈육 원리를 적용하여 영유아와 상호작용해보고, 기회가 되면 다음 모임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또래 갈등(친구 때리기) 훈육 사례 나누기

사례 1. 영아(22개월, 여아)

영아는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다. 다른 친구가 다가오는 것을 본 영아는 “아잉~”하면서 싫은 내색을 한다. 친구는 영아 주변에 놓여있는 블록을 집어 든다. 영아는 친구의 블록을 뺏으려고 잡아당기다가 친구의 팔을 꼬집는다. 서로 블록을 잡아당기다가, 영아는 뺏으려던 블록에서 손을 떼고 양손으로 친구의 얼굴을 꼬집는다. 교사는 영아를 불러서 왜 친구를 꼬집으면 안 되는지 단호하게 설명한다. 그 때 영아는 드러누워서 울며 발버둥을 치다가 교사를 발로 차기도 한다. 영아는 친구들과 갈등 상황에서 꼬집거나 물거나 할퀴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다. 교사가 영아의 잘못을 지적하면 영아는 더욱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교사를 곤란하게 한다.

사례 2. 유아(만5세, 남아)

유아는 블록으로 로봇을 만들고 있다. 원하는 블록을 다른 친구가 쓰고 있어서 자신의 로봇을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친구에게 원하는 블록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다. 얼굴 표정이 약간 굳은 채로 조금씩 다른 블록을 찾는다. 그 때 정리 시간이 되었으나 유아는 여전히 필요한 블록을 찾기 위해, 로봇을 바닥에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다.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친구가 유아의 로봇을 정리하려고 집어 든다. 그 모습을 본 유아는 재빠르게 달려와 친구를 밀치고 “내꺼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쥔 블록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친다.

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4) 3)의 방법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선택한 방식 :

	영유아	교사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영유아를 반복하여 관찰하고 부모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합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향 요인에 따라 교사는 훈육방식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① 발달적 특성	☐ 신체 발달 ☐ 사회성 발달 ☐ 언어적 상호작용(의사 표현, 이해 수준 등)
② 기질적 특성	☐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함 ☐ 감정 기복이 심함 ☐ 흥분을 잘 함 ☐ 일상적인 지루함을 잘 못 견딤 ☐ 감각적 예민성 ☐ 걱정이 많고 불안해 함 ☐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큼 ☐ 사람들과 교류를 좋아하지 않음
③ 경험 정도	☐ 또래(혹은 형제)와 함께 지낸 경험 ☐ 집단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 경험
④ 당일 컨디션	☐ 등원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 사건 ☐ 어린이집 일과 중 영유아의 기분 변화에 영향을 준 만한 사건
⑤ 기타	☐ _____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가족 환경	① 구성원 특성 ☐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부모의 방식 (소리 지르기, 협박하기, 체벌 등) ☐ 부모의 정서 문제(우울, 불안 등) ☐ 형제 관계 갈등
	② 양육방식 ☐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 ☐ 지나치게 허용하는 양육 ☐ 자녀 간 차별 대우
	③ 가족의 변화 ☐ 부모 이혼, 재혼, 사별 ☐ 양육자 교체 ☐ 동생 출생
	④ 기타 ☐
기관 환경	① 직전 사건 ☐ 또래의 접근 ☐ 또래에게 접근 ☐ 또래의 거절이나 배척
	② 공간 구성 ☐ 놀이 영역 협소 ☐ 놀잇감 부족 ☐ 정리 공간 부족
	③ 시간 구성 ☐ 놀이시간 부족 ☐ 지루한 시간 ☐ 휴식(낮잠) 부족
	④ 지도 교사 ☐ 명확한 규칙 부족 ☐ 1 : 1 교류 시간 부족
	⑤ 기타 ☐



3. 친구를 때리는 영유아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1) 사전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① 영유아가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감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감정 덩어리를 조금씩 나누어 읽어주면, 감정의 덩어리가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거나 무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에 담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반영해줄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②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기대와 믿음을 전달하는 것도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③ 결과와 원인의 순으로 인지하게 해주며 공격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갈등상황에 있던 아이들에게 결과와 원인의 순으로 행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교사가 재빨리 개입하여 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2) 갈등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 모두 진정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영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을 때 입력되는 자극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 교사의 사소한 표현, 또래의 반응 등을 비난, 통제, 처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문을 할 수도 있으나 흥분한 상태에서의 교사 발문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왜 그랬니? 친구 마음은 어떨까? 등)을 하기 보다는 영유아의 감정을 추측하여 우선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거나 감정을 반영해주는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3) 진정이 된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마음을 100% 공감해주되, 우리가 약속한 규칙은 무엇인지,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변 상황을 설명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교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유아를 훈육해야 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4)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적절한 대안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방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6) 가정과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할 정보와 요청해야 할 도움을 적어봅시다.

(5)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워크시트에 제시된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이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영유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 교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가상 혹은 실제 사례 내용의 일부분을 표시해가면서 영유아의 입장이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가상 사례 2를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참여 교사 활동: 사례 2의 네 번째 문장 밑줄 긋기 ‘로봇을 꼭 완성하고 싶어. 마음이 너무 급해.’

아동인권 선임교사 설명: 만 3세 이후부터는 완성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할 때 조금해지고, 미성숙한 행동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룹 내 아이디어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를 알려준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을 밑줄 그어볼 수도 있습니다.

▶ 사례 1의 영아

- ① 친구가 블록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건 내꺼야! 혼자만 놀거야!’
- ② 교사의 지적에 대해 ‘블록 놀이 못 하게 해서 선생님 미워! 나 화났어!’

▶ 사례 2의 유아

- ① 급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친구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해서 친구가 믿기도 하지만, 다른 블록으로 완성해보려는 대처 전략을 세운다. ‘친구한테 달라고 말했는데 안 주잖아. 친구가 믿기는 하지만, 로봇을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다른 블록을 찾아봐야겠다.’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참여 교사들이 구체적인 표현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p

다른 친구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리는 대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하고 되물어본다. 참여 교사들이 ‘친구에게 내 꺼라고 말할 수 있으면,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었습니까?

워크시트의 2)과 3) 영역을 작성할 때, 가상 혹은 실제 사례 내용의 일부분을 표시해가면서 교사의 기대나 시도한 방법을 추측해보거나 찾아볼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참여 교사들이 각자 기록해보도록 진행할 수 있다.

4) 3)의 방식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우선 3)에서 찾은 방식 혹은 참여 교사들의 실제 지도 방식 1가지를 각자 선택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다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결과들을 기록하도록 한다.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쪽만 발생할 수도 있다. 각자 기록 후 참여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칸을 채워나갈 수도 있다. 이 때 선택한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가급적 삼간다. 이 내용을 작성하는 목적은, 선택한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자 다르게 반응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교사는 영유아 행동의 개인적 또는 환경적 원인을 구별하여 탐색해 본 후, 그에 맞는 훈육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영유아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참여 교사들이 발견하거나 추측한 요인들을 공유해볼 수 있도록 진행한다. 워크시트 2-1)과 2-2) 영역을 작성할 때, 중복 체크를 할 수 있으며 체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 1~2가지를 함께 선정해본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아래 세 가지 예를 설명하면서, 참여 교사들이 영유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대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 ① 발달적으로 놀잇감을 공유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영아라면, 공격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놀잇감 개수를 늘리는 등의 환경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언어표현이 유창하지 않은 연령이거나 언어발달이 늦은 영유아라면, 구체적인 언어표현을 반복하여 가르쳐주어야 한다.
- ② 감각적으로 예민한 기질의 영유아는 갑작스러운 접근, 우연한 접촉 등을 과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영유아의 불편한 감정을 읽어주거나, 공간을 여유 있게 구성하거나, 영유아가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③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큰 영유아의 경우에는, 평소에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지지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뭔가 불편한 몸짓이나 표현을 보일 때 민감하게 반응해줄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아래 두 가지 예를 설명하면서, 참여 교사들이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대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 ① 최근 들어 가족 구성원이나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면, 영유아는 예측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정서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작은 자극을 과도하게 혹은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좌절을 크게 느끼지만 그러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줄 모르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우선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영유아의 행동, 표정, 말투 등에 담긴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감정을 교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영해줄 수 있어야 한다.
- ② 놀이에 몰입하여 즐기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놀잇감이 부족하다면, 어떤 영유아들은 의도치 않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우선 시간, 공간, 놀이 순서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부연설명을 함께 읽은 후 내용을 작성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아래 제시된 예시를 몇 가지 알려준 후, 참여 교사들이 예시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을 떠올려볼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각 예시 표현들을 활용하여 짧게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다.

1) 사전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① 영유아가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감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놀이 과정에서 관찰된 영유아의 표정이나 몸짓을 읽어주거나, 그 순간의 감정을 추측하여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교사에게 이해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진정하려고 노력합니다.

- 사례1 영아가 칭얼거리면서 친구가 블록을 못 가져가게 막으려는 모습을 본 교사는 “○○는 이거 갖고 놀거구나. 친구가 가져가는 거 싫어~하는거야.”
- 사례2 유아의 일그러진 표정, 조급한 몸짓을 본 교사는 “○○표정을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나보네.” “응~ 마음이 급해. 시간 안에 만들고 싶은데..”

②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유아가 친구에게 먼저 물어본 것, 대체할 만한 다른 블록을 찾으려고 한 것 등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동그란 블록이 필요했구나. 마음이 급했지만 친구한테 먼저 물어봤구나.”
“친구가 안 된다고 해서 속상했구나. 그렇지만 먼저 물어본 건 멋졌어.”
“그래~ 그 바구니에서 비슷한 걸 찾을 수도 있겠다. 좋은 생각인데!”

③ 결과와 원인의 순으로 인지하게 해주며 공격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준다면,

“싸웠구나. 화가 너무 나서 밀었어. ○○이는 **이가 말없이 치우려고 해서 싫었구나.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급했어.”

영유아가 친구를 밀치려고 할 때 교사가 가까이 있었다면,

행동을 제지하며 “○○야! 잠깐! 우리 규칙 기억하고 있지?”

2) 갈등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 모두 진정이 필요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영아들의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할 방법을 찾게 하거나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호흡 크게 하기, 물 마시기, 숫자 세기, 뛰고 오기, 누웠다가 오기, 창가에 앉아서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밖을 바라보기 등의 방법을 제안하여 유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잠깐! 네 마음이 준비되면 그 때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그 동안 네가 좋아하는 소파에서 잠깐 쉬고 올까?”

감정을 반복해서 읽어주어도 쉽게 진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흥분하거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러한 행동에 담겨진 정서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말없이 치우려고 해서 싫었구나.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급했어.”, “잠깐만! 아직도 너무 속상해? 마음이 풀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3) 진정이 된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갈등 상황에 있던 영유아 모두의 마음을 똑같이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과 원인을 읽어준 후,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는 네가 다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려고 한 거였네. ○○이는 자기 작품을 가지고 가서 놀라서 화가 났네. 잘 놀다가 두 친구 모두 기분이 나빠졌네... 이제 어떻게 하지?”

선생님의 나-전달법 (I-Message)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다치고 화나서 울고 있으니, 선생님도 마음이 좋지 않아.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4) 문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영유아, 교사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영유아의 행동에 담긴 마음을 읽어준 후, 꼬집는 행동보다 적절한 언어표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가 혼자 갖고 놀고 싶었구나. 그럴 때 다음에는 내꺼야 하고 말해줘. 꼬집으면 친구가 아파.”
- 유아들이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친 친구는 아파서 울고 있어... 어떻게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실수한 친구의 오해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 유아의 행동에 담긴 마음을 읽어준 후 문제를 명확히 이야기 한 다음,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일단 친구가 다쳤으니 사과를 먼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음에는 어떻게 말하면 네 마음을 친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지, 너의 놀잇감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줄래?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가기 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줄게. 아니면 네가 블록을 찾을 동안 선생님이 로봇을 잠깐 보관해줄 수도 있어.”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발달상 영아는 다른 사람과 물건을 나누어 쓰기 어렵습니다. 양보와 공유를 강조하기보다는 같은 종류의 놀잇감 개수를 늘려서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혹은 문제가 일어나기 직전에 비슷한 놀잇감이나 활동을 제시하여 영아의 주의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 영역(쌓기 영역, 역할놀이 영역 등)은 참여 인원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들은 짧은 시간에 결과물을 내야 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동 계획의 난이도나 구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집단 활동 내용이 승패나 경쟁 요소가 있는 게임일 경우, 감정 조율이 잘 안 되는 영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크게 느낍니다. 좌절감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사소한 자극(또래의 접근, 표현)을 받게 되면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업 계획을 할 때 경쟁 요소와 즐거움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6) 가정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다음 2가지를 참여 교사에게 강조해야하며,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첫째, 부모와 소통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여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의 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부모의 복직, 동생의 출생 등과 같은 가족의 변화가 영유아의 정서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모와 공유해야 합니다.
-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동적으로 표현하는 영유아의 방식은 가족 내에서 학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부모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집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유아의 행동에 담긴 감정과 정서를 부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보육활동 시, 방해 행동에 대한 훈육 사례 나누기

(1) 주 제

보육활동 시, 방해 행동에 대한 훈육 사례 나누기

(2) 목 표

- 영유아 행동에 숨겨진 의미 파악과 교사의 실제 훈육 방식 및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 영유아의 적응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 교사의 훈육 방식 및 기타 역할을 모색합니다.

(3) 자 료

-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2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해당 워크시트

(4) 활동방법

① 교육 전 계획

1) 사례 선정

워크시트에 제시된 가상 사례 혹은 본 주제와 관련된 어린이집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2) 보충 설명 자료 활용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함께 배워요’ 책 p.63~74에 실린 내용을 보충 설명 자료로 활용(소개)하기 위하여,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참여한 교사 모두는 안내서와 워크시트에 제시된 순서대로 자료를 읽어 봅니다..
- 실제 사례를 나누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기록해봅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참여 교사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참여 교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때,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가급적이면 참여 교사들을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③교육 후

교육에서 나눈 훈육 원리를 적용하여 영유아와 상호작용해보고, 기회가 되면 다음 모임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보육활동 시, 방해 행동에 대한 훈육 사례 나누기

사례 1. 유아(만4세, 여자)

대그룹 영역에 모여 앉는 시간이 되자 유아는 의자를 가져온다. 의자에 앉은 다음 두 팔과 다리를 쭉 뻗는다. 이야기 나누기가 시작되자 두 팔과 다리를 흔들며 옆에 앉은 유아를 건드린다. 친구가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흔들거린다. 교사가 의자에 바르게 앉으라고 이야기 했으나 소용이 없다. 바닥에 앉으면 바르게 앉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의자 앞쪽에 앉는다. 잠깐 시간이 지난 후 앞에 앉은 친구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등을 누른다. 친구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다리를 흔들다.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수업은 계속 끊기고, 아이들은 불편함을 토로한다.

사례 2. 유아(만5세, 남아)

친구들과 동화를 듣기 위해 카펫에 모여 앉았다. 도입 부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였고, 다른 아이들과 동시에 손을 들었지만 발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선생님의 동화를 듣는 중간 중간 “아~ 재미없어.” “아~ 저거 꿈 속이야.” 라고 말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다. 교사는 “지금은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하세요.”라고 지적한다. 유아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이야기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 다른 책 한 권을 가져와서 펼친다. 책을 읽는 시늉을 하며 부자연스럽게 웃고 몸을 움직이며 “이게 훨씬 재미있지롱~”하고 말한다. 교사가 다시 지적하자 책을 내려놓긴 했으나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방귀 냄새가 난다며 과도하게 행동한다.

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4) 3)의 방법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선택한 방식 :		
	영유아	교사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영유아를 반복하여 관찰하고 부모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합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향 요인에 따라 교사는 훈육방식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발달, 기질, 경험 정도 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① 발달적 특성	☐ 인지 발달(언어 이해력, 주의집중 정도 등) ☐ 언어 발달(의사 표현, 이해 수준 등) ☐ 신체 발달(자세 유지)
② 기질적 특성	☐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큼 ☐ 실증을 잘 냄 ☐ 일상적인 지루함을 잘 못 견딤 ☐ 흥분을 잘 함 ☐ 에너지가 커서 쉽게 지치지 않음 ☐ 참을성 부족 ☐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큼 ☐ 사람들과 교류를 좋아하지 않음
③ 경험 정도	☐ 집단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 경험 ☐ 수업 내용과 비슷한 활동 경험 혹은 지식 보유 유무
④ 당일 컨디션	☐ 등원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 사건 ☐ 어린이집 일과 중 영유아의 기분 변화에 영향을 준 만한 사건
⑤ 기타	☐ _____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가족 환경	① 구성원 특성 ☐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 ☐ 가족 내 상호작용 부족
	② 양육방식 ☐ 지나치게 허용하는 양육 ☐ 정서적 방임
	③ 가족의 변화 ☐ 부모 이혼, 재혼, 사별 ☐ 양육자 교체 ☐ 동생 출생
	④ 기타 ☐ _____
기관 환경	① 직전 사건 ☐ 다른 친구가 교사에게 관심을 받음 ☐ 직전 활동 시간에 과도하게 흥분 ☐ 또래의 거절이나 배척
	② 공간 구성 ☐ 비효율적인 자리 배치 ☐ 영유아 사이 협소한 공간
	③ 시간 구성 ☐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시간 분배 ☐ 지루한 수업 내용 및 방식 ☐ 휴식(낮잠) 부족
	④ 지도 교사 ☐ 일방적인 수업 진행 ☐ 수업 진행시 돌발 상황 대처 부족
	⑤ 기타 ☐ _____

3. 수업을 방해하는 영유아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1) 일과 중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때 매우 민감하게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교사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적절한 행동만을 지적하기보다는 평소에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는 교사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그 행동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영유아가 하루 일과 중 적응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2) 에너지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높은 영유아는 활동량도 많고, 타인에게 관심받으려는 욕구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교육 내용이 너무 정적일 경우에는 에너지 해소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때 산만한 행동 등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 에너지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어봅시다.

**3)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영유아 중에서는 주의 전환이 잘 되지 않는 영유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우 즐겁게 흥분하여 어떤 놀이를 한 직후 진정하는 데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동적인 활동을 한 후 정적인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무리와 도입 사이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의 전환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적어봅시다.

4)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달 수준이 평균 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발달이 느릴 경우, 활동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발달이 우수한 경우, 활동 내용이 너무 쉽고 지루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인지 발달이 현저히 늦거나 빠른 영유아의 방해 행동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봅시다.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동안 불필요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생길 경우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사전에 정한 방식이나 계획대로만 수업을 진행할 경우, 자유분방한 특성이 강한 아이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주의 전환이나 집중에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6) 가정과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할 정보와 요청해야 할 도움을 적어봅시다.



(5)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워크시트에 제시된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이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영유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 교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가상 혹은 실제 사례 내용의 일부분을 표시해가면서 영유아의 입장이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가상 사례 1을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참여 교사 활동: 사례 1의 세 번째 문장 밑줄 긋기  ‘내가 아는 동화야. 너무 지루해.’
아동인권 선임교사 설명: 지루한 내용을 들을 때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유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다가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자극에 이끌려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룹 내 아이디어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를 알려준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을 밑줄 그어볼 수도 있습니다.

▶ 사례 1의 유아

- ①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가 지루해서 집중이 안 되던 찰나에 바로 앞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이 끌린다. ‘어! 친구 머리를 당기니까 친구가 돌아보잖아. 한번 해보자. 재미있는데?’
- ② 교사의 지적에 대해 ‘블록 놀이 못 하게 해서 선생님 미워! 나 화났어!’

▶ 사례 2의 유아

- ① 발표 기회를 얻지 못해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거절당했다는 마음은 분노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이후 교사의 지적에도 소극적으로 반항하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다. ‘선생님이 준호한테만 발표하라고 했어. 나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관심을 안 보여줘서 속상해.’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참여 교사들이 구체적인 표현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유아가 어떤 모습일 때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어요?”하고 되물어본다. 참여 교사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질문할 때만 말했으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워크시트의 2)과 3) 영역을 작성할 때, 가상 혹은 실제 사례 내용의 일부분을 표시해가면서 교사의 기대나 시도한 방법 추측해보거나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참여 교사들이 각자 기록해보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3)의 방식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우선 3)에서 찾은 방식 혹은 참여 교사들의 실제 지도 방식 1가지를 각자 선택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결과들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쪽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기록 후 참여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칸을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선택한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가급적 삼가합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는 목적은, 선택한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자 다르게 반응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교사는 영유아 행동의 개인적 또는 환경적 원인을 구별하여 탐색해 본 후, 그에 맞는 훈육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참여 교사들이 발견 하거나 추측한 요인들을 공유해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다음의 1)과 2) 영역을 작성할 때, 중복 체크를 할 수 있으며 체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 1~2가지를 함께 선정해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아래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참여 교사들이 영유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대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① 다른 시간에도 수행이 빠르지 않거나, 엉뚱한 질문 혹은 행동을 하는 영유아라면, 전 반적인 인지발달 지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상황 이해나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인지 발달은 또래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자기조절능력 또는 주의집중능력이 비교적 덜 발달한 유아 또한 수업 시간에 방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하거나, 핵심 자극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만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 ② 방해 행동을 하는 시간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흥분하여 놀다가 진정이 안 된 채로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참여하게 되면, 끊임없이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기도 합니다.
- ③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해 행동을 한다면, 평소에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에만 훈육을 하게 되면, 반항적인 행동의 양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아래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참여 교사들이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대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① 어린이집이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하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유아의 기질적인 특성이 주원인이라면, 부모와 함께 유아의 행동조절에 도움이 되는 개입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했다면, 교사는 우선 유아와 따뜻한 관계를 쌓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무 허용적이어서 연령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면, 교사는 적응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수업 내용이나 방식이 지루하거나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리 배치 또한 유아가 다른 자극에 주의를 분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업을 방해하는 영유아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부연설명을 함께 읽은 후 내용을 작성하고 공유하도록 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아래 제시된 예시를 몇 가지 알려준 후, 참여 교사들이 예시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을 떠올려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각 예시 표현들을 활용하여 짧게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 일과 중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때 매우 민감하게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멋지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어야 합니다.
- ① “오늘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유아가 선생님 눈을 쳐다보면서 집중했지. 유아가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뻐요.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거야.”
- ② “몸이 꿈틀꿈틀.. 조금 힘들어요~ 하는거구나.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거네.”
- 수업 참여와 관련이 없는 행동일지라도, 1:1 상황을 자주 만들어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교류가 쌓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가 산만해지려는 순간에 교사가 개입을 할 때, 영유아는 거부하거나 반항하기보다는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영유아의 옷차림새, 머리 모양의 변화 등을 언급해주는 것도 교사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영유아의 하루 일과 계획에 산책하기, 간단한 운동하기, 대근육 활동 등을 골고루 반영해야 합니다.
- 유아에게는 짧은 심부름을 시키거나, 정리할 때 목표지점에 맞춰서 던져 넣거나 2~3개 물건을 쌓아서 넘어뜨리지 않고 이동하여 정리하기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활동 도입 부분에 활동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



4)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영아는 수업 내용에 대한 집중보다는 교사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교사는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진행하되, 참여 아이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업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모르는 내용이지만 금방 이해한 후 쉽게 지루해지는 유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하라는 지시보다는, 보조교사나 탐정 역할을 주어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교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교육 자료나 교사를 쳐다볼 때 다른 시각적 혹은 청각적 자극이 겹쳐지면,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수업 분위기를 흐립니다. 그러므로 주의집중을 하지 못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영유아는 뒷자리, 출입문 근처, 바깥이 보이는 창문 근처에 앉지 않도록 미리 자리 배치를 해야 합니다.
- 이야기 나누기 시간과 같은 정적인 교육 자료를 쓸 때는 영유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교사가 스무고개나 수수께끼를 내어줄 수도 있고, 방해하는 유아에게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아이에 따라서 약간의 움직임이 집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카펫이나 의자에 앉으라고 하기보다는 영유아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6) 가정과 협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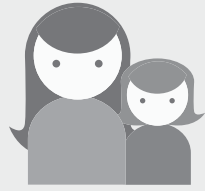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다음 2가지를 참여 교사에게 강조해야 하며,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첫째, 부모와 소통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여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의 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 시 참고하세요.

- 부모를 통해 영유아가 일상생활 중 유사한 장면(놀이터나 문화센터 등에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간, 장소에서만 방해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환경적 조정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영유아가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하게 타인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거나, 훈육을 하지 않았다면, 영유아는 자신의 방해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 부모는 평소에 영유아에게 어떤 때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바쁘거나 정서적으로 무기력하면 영유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만 혼낼 경우, 영유아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록





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이해와 실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의 해설서([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참고) 챕터별로 공부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및 실천사항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¹⁶⁾

연 번	내 용	확 인
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1	낮잠 및 휴식에 대한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시간,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다.	☐
1-2	대소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놀이하려는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3	급 · 간식에 대한 영유아의 기호, 먹는 속도와 양을 존중해주고 있다.	☐
1-4	배변, 배뇨 등 영유아의 기본적인 생리적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5	보육교직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2-1	영유아가 만든 결과(작품, 사진, 노래, 블록, 구조물 등)에 대해 존중하며 적절히 게시되어 있다.	☐
2-2	영유아의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3-1	영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놀이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
3-2	영유아의 흥미, 관심, 기분 및 건강상태를 전반적인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
3-3	영유아 간의 관계를 살피며 상호 역동성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한다.	☐

연 번	내 용	확 인
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4-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4-2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3	양육자의 보육실 참관(절차 및 방법, 안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5-1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상태(기분, 건강, 배변 등)와 가정 내 주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5-2	양육자에게 규칙적인 등 · 하원 시간 등 안정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5-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자와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
6-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
6-3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7-1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7-2	보육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1	어린이집 운영(보육과정, 특별활동, 견학, 행사 등)의 계획과 평가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8-2	반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회의를 통해 협력 및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

16)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서울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p1~2.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연번	신고의무자	소관부처	부서명	관련단체
1	가정위탁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정책과	중앙가정위탁지원 센터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정책과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중앙 지원단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 무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정책과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 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 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 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11월 시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6.11월 시행) 및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기반과	한국어린이집총 연합회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교육부	유아교육정 책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연번	신고의무자	소관부처	부서명	관련단체
14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 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구강생활 건강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학 정책과	대한한 의사협회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 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 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6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 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 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	한국정신보건사회 복지사협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국정신보건전문 요원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 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자립 지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8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 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환경과	
19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 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 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교육부	교원복지 연수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 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 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 자·직원	교육부	평생학습정 책과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2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 돌보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돌보미지원센터
23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드림스타트지원사업단
24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과 그 종사자(‘16.11월 시행)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정책과	중앙입양원

참고문헌



- » 강남구정신보건센터 www.smilegn.net
-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 권미경, 이순형. (2010).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 학회지*, 14(1), 145-171.
- » 김선훈. (2006). '훈육'의 교육적 의미의 재해석. *열린교육연구*, 14(2), 123-138.
- » 김수영. (2010). 유아교육기관 멘토-멘티의 행동유형에 따른 초임교사의 조직몰입 및 직무 만족의 차이
- » 노유진. (2015. 04. 03). 분노조절장애 원인과 예방법은? 어릴때부터 감정 조절 필요. 키즈맘.
- » 대한소아과학회. (2012). 한국형 영유아 발달검사. 서울 : 대한소아과학회.
- »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아동학대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과천 : 법무부.
-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돌봄시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집. 세종 :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 (2016).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2). 보건복지부.
-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2012). 좋은 교사되기 핸드북. 서울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4). 아동학대를 넘어 아동권리존중으로.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 어린이집 훈육가이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어린이집에서의 훈육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와 훈육의 재조명」.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1,2권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세이브더칠드런·한국아동권리학회.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보건복지가족부, 세이브더칠드런
- » 세이브더칠드런. (2012). 아동권리기본교육 매뉴얼. 세이브더칠드런.
- » 오선영. (2015).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전문요원 양성교육자료집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과 긍정적인 훈육」.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이미화 외. (2013).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서울 : 보건복지부.
- » 이재연, 안동현. (2015). 아동권리 0-8. 서울 : 교육과학사
- » 이희영. (2006). 아동생활지도. 서울 : 21세기사.
- » 야누슈 코르차크. (2002). 야누슈 코르차크의 아이들(노영희 역자). 서울 : 양철북.
- » 전경우. (2012). 화, 참을 수 없다면 똑똑하게. 파주 : 21세기북스.
- » 정진화. (2015). 서울시 어린이집 훈육안내서 제작 및 발간 토론회 자료집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와 실천하기」.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Jeffrey Trawick-Smith . (2007). 놀이지도 : 아이들을 사로잡는 상호작용(송혜린, 신혜영, 신혜원 역자). 서울 : 다음세대.
- » Lara Honos-Webb. (2010). (우울증이 주는) 선물 :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치유할 수 있을까(신민섭, 김성준 공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 » Rolf Merkle. (2010). 왜 나는 우울한 걸까(장혜경 역). 서울 : 생각의 날개.
- » Robin Lynn Leavitt. (2014.). 어린이집에서의 권력과 정서(양옥승, 신은미 역자). 서울 : 학지사.
- » Russel A, Barklcy. (1997). 말 안 듣는 아이(안동현, 김세실 공역). 부산 : 하나의학사.

기획·총괄

김혜정 서울시보육담당관
지선병 서울시보육담당관 현장점검팀장
김승환 서울시보육담당관 현장점검팀 실무사무관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집필진

유정은 교육연구소 R.E.D. 대표
차미숙 도담도담아동청소년상담센터 수석상담연구원
이혜경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컨설턴트
최소영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컨설턴트
고유빈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감수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부교수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단체 고문
박은희 구립 새들어린이집 원장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발행 2017년 3월
발행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02-772-9814~8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
인쇄처 CMYK 032-613-6107

ISBN 979-11-85917-16-0